

『梅山集』에 수록된 산문의 구성 및 특징*

- 간본 및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필사본 『梅山集』에 수록된
奏議類, 書說類, 序跋類 간 비교를 중심으로 -

The Composition and Characteristics of Prose in *Maesanjip*

- Focusing on the Appeals, Letters, Prefaces and postscripts in the wooden movable-type
printing and the manuscript -

이 형 유 (Lee, Hyung yu)**

◁ 목 차 ▷

- | | |
|-----------------|-----------------|
| 1. 서 론 | 4. 序跋類의 구성 및 특징 |
| 2. 奏議類의 구성 및 특징 | 5. 결 론 |
| 3. 書說類의 구성 및 특징 | <참고문헌> |

< 초 록 >

본 연구는 홍직필의 간본 『梅山集』 53권 28책과 『梅山集』의 교정원고 합집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필사본 224책(이하, 국중본)에 수록된 산문 중 奏議類, 書說類, 序跋類에 해당하는 작품을 비교하여 판본별 문체의 구성과 특징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주의류는 간본에 31편(疏 11편, 啓 12편, 議 7편, 筵說 1편), 국중본에 중복 포함 53편, 중복 제외 41편(疏 13편, 啓 16편, 議 11편, 筵說 1편)이 수록되었다. 홍직필의 주의류는 문집 외에 승정원일기, 실록에서도 확인되며 그 비교 결과, 가장 많은 주의류가 수록된 것은 국중본, 그 다음은 승정원일기이지만 국중본에 없는 글이 승정원일기에 실린 사례와 그 반대 사례를 통하여 홍직필의 주의류를 연구할 경우, 간본 문집 뿐 아니라 국중본, 승정원일기 등을 모두 참조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서설류는 각 판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간본에 1,017편(書 1,017편, 書贈 ×), 국중본에 중복 포함 8,545편, 중복 제외 6,357편(書 6,188편, 書贈 169편)이 수록되었으며, 간본에서만 확인되는 편지 14편을 통하여 모든 교정 원고가 국중본에 수합된 것은 아님을 확인하였다. 수신자는 간본 410명, 국중본 956명이며, 양 본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수신자는 404명, 간본에서만 확인되는 수신자는 6명, 국중본에서만 확인되는 수신자는 552명이었으며, 이는 간본 문집에 수록된 글을 통하여 분석하는 저자의 사회적 인간관계는 실제와 비교하여 절반 정도의 관계만 파악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내포한다.

서말류는 간본에 45편(序 21편, 跋 24편), 국중본에 중복 포함 394편, 중복 제외 237편(序 134편, 跋 103편)이 수록되었다. 국중본에는 杜門洞 72현 중 한 명인 程廣의 『巾山集』에 대한 서문이 수록된 것처럼, 현존본이 확인되지 않는 책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국중본의 남다른 자료적 가치를 확인하였다.

要語: 洪直弼, 19세기 문집, 목활자본, 필사본, 상소, 서간문, 서말문

* 본 논문은 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 '洪直弼의 『梅山集』 편찬과 간행에 관한 연구'에서 정리된 詩賦類, 奏議類, 書說類, 序跋類, 雜記類, 箴銘類, 頌讚類, 哀祭類, 碑誌類, 傳狀類, 기타 잠문 중 奏議類, 書說類, 序跋類만을 축약, 정리한 것임.

** 성균관대학교 사서교육원 강사(hyungyu1979@naver.com)

투고일: 2020년 11월 20일 최초심사일: 2020년 11월 30일 게재확정일: 2020년 12월 11일
서지학연구, 제84집, 163-203, 2020. <https://doi.org/10.17258/jib.2020..84.163>

<ABSTRACT>

This study reveal the composition and characteristics of works by comparing Appeals, Letters, Prefaces and postscripts contained in two types of *Maesanjip* by Hong Jik-pil, the wooden movable-type printing 28 book (=published) and the manuscript 224 book (=proofread). Appeals are included in 31 works in the published books, and there are 53 works including duplicates, 41 works without duplicates in the manuscript. Letters are included in 1,017 works in the published books, and there are 8,545 works including duplicates, 6,357 works without duplicates in the manuscript. The number of recipients is 410 in the published book, 956 in the manuscript, and 404 in common. And 6 recipients are verified only in the published books, 552 recipients are verified only in the manuscript. Prefaces and postscripts are included in 45 works in the published books, and there are 394 works including duplicates, 237 works without duplicates in the manuscript.

Key words: Hong Jik-pil, Collections of works in the 19th century, Wooden movable-type printing, Manuscript collection, Appeals, Letters, Prefaces and postscripts

1. 서론

매산 홍직필(1776~1852)은 조선 후기 대표 유학자 중 하나로 기호학과 낙론의 주맥이자 一世의 儒宗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평가답게 홍직필은 관직에 나가길 거부하고 처사로 은거하면서 낙론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낙론의 학문적 목표를 구체화하는데 학문적 관심을 쏟으며 평생을 학문 교류와 후학 양성에 몰두하였다. 그 결과 당대 수많은 학자 및 문인들과 교류한 편지와 방대한 분량의 저술이 남겨졌으며 홍직필은 이를 1852년 7월 사망하기 전 家藏草本 100책으로 직접 정리하였다.

홍직필의 문인이자 『梅山集』 편찬자인 한운성, 조병덕, 임헌회의 문집 『立軒集』, 『鼓山集』, 『肅齋集』에 수록된 편지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문집 편찬은 1853년 홍직필의 아들 홍일순과 문인들이 함께 협력하여 가장초본의 탈초를 시작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탈초가 완료된 1855년 중순 이후부터 1865년 3월까지의 교정과 등사, 간본에 수록할 작품의 선별 작업이 계속 진행되었고, 1865년 4월부터 홍직필의 문인인 소휘면이 거주하던 익산에서 목활자로 간인이 시작되어 1865년 여름에 53권28책(목록1책 포함)에 달하는 『梅山集』 190질의 인쇄가 완료되었다. 이후 속집과 유보의 重刊은 없었기에 현재 확인되는 매산집의 간본은 모두 초간본이며, 초간본 190질 중 현존본은 처음 간인량의 16.3%인 31질(국내 23질, 국외 8질)이다. 또한 장기간의 편찬 과정 중 산출된 수많은 교정 원고는 문집이 간인되던 시기에 224책으로 묵이게 되었고 이후 조선총독부 도서관을 거쳐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이하 국중본)에 소장되었다.

교정 원고의 합집인 국중본은 13년간의 문집 교정 기록과 함께 편찬 과정에서 산삭된 작품¹⁾의 면면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간본과 국중본의 전체 구성과 작품을 비교 분석하여 각 판본별 구성 상 차이 및 그 특징에 대하여 밝힌 연구는 몇 편에 불과하다. 현재까지 간본과 국중본 간 비교 분석을 진행한 연구로는 국중본 제175~211책에 수록된 行狀類, 碑誌類 등의 전기 자료만을 대상으로 한 이은주의 연구와 이은주의 연구를 일부 참고하여 진행한 신영주의 논문, 각 판본에 수록된 詩賦類의 구성 및 편찬과정을 분석한 이형유의 연구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²⁾ 이형유가 진행한 시부류 연구는 운문이기에 본 논의에서 제외한다면, 매산집에 수록된 산문에

1) 간본 53권28책에 수록된 작품 수는 517題710首 1,392편이며, 국중본에는 3,017題4,454首 10,324편이 수록되었다. 국중본에는 홍직필이 아닌 다른 인물의 글 260편(序 6편, 祭文 64편, 致祭文 1편, 墓碣銘 1편, 墓碑銘 1편, 行狀 10편, 雜著 177편.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형유, “필사본 『梅山集』의 구성 및 타인 저작에 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53권 3호(2019. 8) 참조)이 수록되었으며 이를 제외하면 3,017題4,454首 10,064편(奏議類:53편, 書說類:8,545편, 序跋類:394편, 雜記類:112편, 箴銘類:14편, 頌讚類:17편, 哀祭類:230편, 碑誌類:430편, 傳狀類:186편, 기타:83편)이 홍직필의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통용되는 淸 姚鼐의 『古文辭類纂』 13분류법을 준용하였음을 밝힌다.

2) 이은주, “筆寫本 梅山集의 傳記資料의 價値에 對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15), 1-51.
; 신영주, “梅山 洪直弼의 儒道 宗承과 警世의 시문 창작에 관한 고찰,” 『한문고전연구』 제30집(2015), 273-306.
; 이형유, “국중본 『梅山集』 중 시부류의 구성 및 편찬 과정에 대한 연구,” 『서지학연구』 79집(2019. 9), 133-166.

대한 분석은 현재까지 행정류와 비지류 만을 중심으로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즉, 홍직필의 정치적 역량과 경륜을 직관할 수 있는 奏議類, 홍직필의 학문적 지향점과 사상을 알 수 있으며 일생동안의 인간관계의 유형과 그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書說類, 홍직필의 독서 행태 및 당대 출판문화의 관습을 엿볼 수 있게 해주는 序跋類에 대한 분석이 시도된 적은 아직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편찬의 결과물인 매산집 간본과 교정 원고의 합집인 국중본에 수록된 산문 중 奏議類, 書說類, 序跋類에 해당하는 모든 작품을 비교하여, 각 판본별 奏議類, 書說類, 序跋類의 구성과 그 특징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우선 양 본에 수록된 奏議類, 書說類, 序跋類에 해당하는 작품을 문체별로 분류한 다음 간본으로 편찬된 작품 순서에 준하여 문체별 개념을 알아보고, 해당 작품의 전체 구성을 판본별로 개괄하였다. 이어서 연도별로 국중본 작품 중 간본으로 편찬된 작품 수와 중복 여부에 따른 작품 수를 시기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하면서 이때 나타나는 특징을 알아본 다음, 간본으로 편찬된 작품이 가지는 특징 및 성격을 알아보았다. 아울러, 서설류의 경우 연도별 작품 수 분석과 함께 홍직필과 편지를 교류하였던 수신자들의 규모 및 시기별 수신자의 유형 변화를 함께 살펴보았다.³⁾

2. 奏議類의 구성 및 특징

奏議類는 조정에서 신하가 군왕에게 정무 및 당대 현안과 관련된 내용을 아뢰는 공문으로, 실용적인 성격이 강하며 문장에는 간결함, 전아함, 진실성이 내포되어야만 하는 양식이다.⁴⁾ 奏議類의 연원은 『尙書』의 『伊訓』, 『太甲』 등에서 비롯되었으며 奏·議·疏·啓·劄子·章·表·封事·對策·箋 등 다양한 문체가 여기에 속한다. 우리나라의 주의류는 삼국시대부터 기록을 찾을 수 있으며 문체적 특성, 체제나 인식에 대한 언급은 고려 후기에 이르러서야 나타나고 있고 조선 중기 에 이르러 확립되었다. 이후 조선 후기 문예 부흥기를 구가한 正祖대에 이르러서 주의류 산문에 대한 관심과 인식은 더욱 심화되었다.⁵⁾

간본 『梅山集』 중 奏議類에 속하는 문체는 疏, 啓, 議, 筵說, 총 4종이 확인되고 있다. 간본 권4에 수록된 奏議類는 疏 11편, 啓 12편, 議 7편, 筵說 1편 등 총 31편이 실려 있다. 국중본 제13~15, 197, 217책에 수록된 주의류는 총 53편, 중복 제외 시 41편이며 그 중 疏 13편, 啓 16편, 議 11편, 筵說 1편이 실려 있다. 국중본과 함께 주의류가 수록된 문헌은 승정원일기와 실록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3) 『梅山集』 간본과 필사본 이본의 현황 및 각 판본의 형태서지사항과 관련된 내용은, 이형유, “필사본 『梅山集』의 구성 및 타인 저작에 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53권 3호(2019. 8) 중 2장, 이형유, “국중본 『梅山集』 중 시부류의 구성 및 편찬 과정에 대한 연구,” 『서지학연구』 79집(2019. 9) 중 2장, 이형유, “洪直弼의 『梅山集』 편찬과 간행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20.8) 중 제3장 제2절의 내용으로 같음하겠다.

4) 진필상, 『한문문체론』 (이회문화사, 2001), 298-311.

5) 최식, “주의류(奏議類) 산문의 특징과 전개양상,” 『동방한문학』 31(2006. 12), 203-223.

간본과 3종의 책을 함께 비교하면서 『梅山集』에 수록된 주의류의 구성과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2.1 疏

疏는 신하가 왕에게 올리는 문장을 통칭하는 글이다.⁶⁾ 간본 권4에 수록된 상소문 11편은 모두 辭職疏로, 1841년 遺逸로서 본격적으로 관직이 제수되기 시작한 때부터 1852년까지 12년간의 글이 수록되었다. 홍직필은 1841년 7월 경연관에 제수된 후 이어 8월에 사헌부 지평, 12월에 사헌부 집의에 제수되어 이에 상소하고 사직하였으나, 경연관의 직임은 체직되지 않으면서 1843년 1월과 4월 경연관 사직 상소를 올리게 되었다. 이어 1843년 9월 헌종 비인 孝顯王后가 승하함에 따라 輓章製述官에 제수된 이후, 1844년 8월에 工曹參議, 1845년 7월 成均館 祭酒, 1846년 7월 헌종의 부친인 孝明世子 遷陵의 輓章製述官, 1849년 8월 헌종의 輓章製述官, 1851년 1월과 9월에 大司憲, 1852년 1월에 知敦寧府事에 제수되었다. 상소가 없던 시기는 1842년과 1847~1848년, 1850년으로 그에게 관직이 제수되던 시기와 상소를 올리던 시기가 궤를 함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홍직필은 관직이 제수될 때마다 사직 상소를 올렸고 그 결과 11편의 사직소가 간본에 실리게 되었다.

그런데 편찬 원고의 합집인 국중본 제13~15, 217책에 수록된 상소문은 <표 1>과 같이 총 13편(중복 포함 18편)으로 간본보다 2편이 더 많으며, 이 2편은 각각 1819년과 1851년에 작성된 상소문임을 확인하였다. <표 2>와 함께 간본과 국중본 문집, 그리고 승정원일기, 실록에 함께 수록된 홍직필의 疏를 비교해서 두 편의 상소를 살펴보도록 하

<표 1> 간본·국중본에 수록된 연도별 疏편수

연번	서기	연령	간본	국중본	
				중복 제외	중복 포함
1	1819	44	-	1	2
2	1841	66	1	1	1
3	1842	67	-	-	-
4	1843	68	3	3	5
5	1844	69	1	1	1
6	1845	70	1	1	1
7	1846	71	1	1	1
8	1847	72	-	-	-
9	1848	73	-	-	-
10	1849	74	1	1	1
11	1850	75	-	-	-
12	1851	76	2	3	5
13	1852	77	1	1	1
총			11	13	18

겠다. 우선 1819년 상소는 제13책, 제217책에 중복 수록되었으며, 제13책과 제217책에 수록된 두 상소는 제목의 일부 차이(『故郡守趙有善故參奉趙有憲 褒贈疏』, 『蘿山趙公伯仲請褒疏 代府儒作』)가 보이지만 본문 비교 결과 동일한 글임을 확인하였다. 해당 상소는 제목으로 알 수 있듯이 農巖 金昌協의 嗣孫이자 老論 洛論의 대표적인 山林學者 溪湖 金元行의 문인인 蘿山 趙有善(1731~1809)과 芝山 趙有憲(1736~1815)의 학문과 행실을 인정하여 포증을 청하는 소[褒贈疏]를 홍직필이 府儒를 대신하여 작성한 것이다. 여기서 府儒가 누구인지 단서를 추적해보면, 국중본 제13책 표지 안에 적힌 ‘代松京儒生儒請’과

6) 賀復徵, 『文體明辯彙選』.

김조순,⁷⁾ 남공철⁸⁾이 1824년 순조에게 올린 趙有善, 趙有憲의 포증을 청하는 계에서 松京儒生들의 포증소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府儒는 松京 儒生임을 알 수 있다. 포증소가 간본에 수록되지 못한 이유는 홍직필이 직접 쓴 것이지만 자신의 이름으로 상소를 올린 것이 아니라 松京의 유생을 대신하여 작성한 것이기에 빠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포증소는 간본 『梅山集』에는 빠졌으나 1859년에 간행된 조유선의 문집 『蘿山集』 卷12⁹⁾에 실려 있다.

<표 2> 간본·국중본·승정원일기·실록에 수록된 홍직필의 疏

연번	간본	국중본	승정원일기	실록
1	×	×	1951책(탈초본103책) 순조8년(1808)7월8일 28/30기사	×
2	× 『蘿山集』卷12 請褒疏 己卯五月 [洪梅山代府儒作]	13册+217册 蘿山趙公伯仲請褒疏 代府儒作(중복)	×	×
3	卷4 辭持平兼經筵官疏辛丑八月十二日	15册 辭持平兼經筵官疏辛丑八月十二日	2393책(탈초본118책) 현종7년(1841)8월13일 25/25기사	×
4	卷4 承別諭後辭經筵官召命疏 癸卯正月二十四日	14册+15册 承別諭後辭經筵官召命疏 癸卯正月二十四日(중복)	2410책(탈초본119책) 현종9년(1843)1월28일 25/25기사	×
5	卷4 辭召命兼陳所懷疏癸卯四月九日	15册 辭召命兼陳所懷疏癸卯四月九日	2413책(탈초본119책) 현종9년(1843)4월13일 10/11기사	『憲宗實錄』卷10, 현종 9년 4월13일 丙戌 2번째 기사
6	卷4 奉慰仍辭輓章製述疏癸卯九月十八日	14册+15册 奉慰仍辭輓章製述疏 癸卯九月十八日(중복)	2419책(탈초본119책) 현종9년(1843)9월21일 25/25기사	×
7	卷4 辭新資及工曹參議疏甲辰八月二十一日	15册 辭新資及工曹參議疏甲辰八月二十一日	2430책(탈초본119책) 현종10년(1844)8월22일 14/14기사	×
8	卷4 辭祭酒兼陳所懷疏乙巳七月初三日	15册 辭祭酒兼陳所懷疏乙巳七月初三日	2441책(탈초본120책) 현종11년(1845)7월4일 14/14기사	×
9	卷4 辭遷陵輓章製述及本兼諸任因陳所懷疏丙午五月十五日	15册 辭遷陵輓章製述及本兼諸任因陳所懷疏丙午五月十五日	2450책(탈초본120책) 현종12년(1846)5월15일 9/10기사	×
10	卷4 奉慰仍辭輓章製述及本兼諸任因陳所懷疏己酉八月十五日	15册 奉慰仍辭輓章製述及本兼諸任因陳所懷疏己酉七月十五日	2490책(탈초본121책) 철종 즉위년(1849)8월16일 31/33기사	×
11	卷4 辭大司憲兼陳所懷疏	15册 辭大司憲兼陳所懷疏	2513책(탈초본122책) 철종2년(1851)1월11일 11/11기사	×
12	×	15册 陳慰謙辭大司憲祭酒經筵官疏/陳慰謙辭祭酒經筵官仍陳所懷疏 辛亥六月二十三日(중복)	2518책(탈초본122책) 철종2년(1851)6월24일 18/20기사	『哲宗實錄』卷3, 철종 2년 6월 24일 己卯 1번째 기사
13	卷4 辭大司憲兼陳所懷疏辛亥九月二十九日	15册 辭大司憲兼陳所懷疏 辛亥九月二十九日	2522책(탈초본122책) 철종2년(1851)9월30일 30/31기사	『哲宗實錄』卷3, 철종 2년 9월 30일 壬午 1번째 기사 (“大司憲洪直弼, 上疏乞遞, 仍陳勉賜, 優批.”)
14	卷4 辭知敦寧兼陳所懷疏壬子正月十九日	15册 辭知敦寧兼陳所懷疏壬子正月十九日	2526책(탈초본122책) 철종3년(1852)1월21일 11/12기사	×

7) 『承政院日記』 2183책(탈초본111책) 순조 24년 9월7일 33/33기사. “... 祖淳曰, 年前松京儒生輩, 以故郡守趙有善, 故參奉趙有憲兄弟, 篤學力行之實, 仰請褒贈, 有令廟堂稟處之命, 而尚未回啓矣 ...”
 8) 『承政院日記』 2184책(탈초본111책) 순조 24년 10월 26일 16/16기사. “... 公輒曰, 年前松京儒生疏陳故郡守趙有善·故參奉趙有憲兄弟篤學力行之實, 仰請褒贈, 而向來領敦所奏, 以兩人實狀, 果如其疏, 合有褒美之典爲辭矣 ...”
 9) 『蘿山集』 卷12 「請褒疏 己卯五月 [洪梅山代府儒作].」

국중본에만 수록된 1851년 6월 상소는 국중본 15책 24번째에 실린 『陳慰謙辭大司憲祭酒 經筵官疏』, 25번째에 실린 『陳慰謙辭祭酒經筵官仍陳所懷疏 辛亥六月二十三日』을 통하여 간본에 빠진 이유를 알 수 있다. 단순히 제목을 통하여 생각할 경우 두 상소는 서로 다른 상소로 보이나 24번째 사직소 중 후반 절반이 25번째 사직소 처음에 그대로 중복되고 작성 시기 역시 둘 모두 辛亥六月이다. 즉, 비슷한 시기에 작성된 절반 정도의 내용이 완전히 동일한 두 상소를 모두 임금에게 올렸다고 볼 수는 없기에 둘 중 하나는 편집본이고 나머지는 완성본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1851년 6월 24일 승정원일기에서 확인되는 홍직필의 상소는 25번째 사직소 중 24번째 사직소와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옮겨져 있다.¹⁰⁾ 1851년 6월의 사직소에 내용 중 홍직필은 1849년 6월에 자신이 올린 현종의 혼전인 孝定殿과 현종 비인 효현왕후의 혼전인 徽定殿 祝式과 관련된 현의¹¹⁾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었기에 스스로 벌을 청한다는 내용이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조선의 문집은 개인 저작의 총합이기에 개인에 대한 공적, 사적인 면모를 정확하게 살필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하지만, 또한 후대가 문집을 보게 될 경우 이 때 파악되는 홍직필은 조선 후기 기호 낙론의 계승자이자 사대부로서 가지는 이상적인 인물상에 부합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문집에 잘 나타나야만 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홍직필의 오류, 잘못과 같은 글은 문집 편찬자들의 입장에서는 배제하여야만 하는 것들이었고, 이것이 이유가 되어 1851년 6월의 사직소가 간본에서 빠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승정원일기에 기록된 비답을 보면 당시 철종은 이를 문제 삼지 않았으며, 비록 간본에는 해당 사직소를 신지는 않았으나 사직소에 대한 철종의 비답은 간본 卷53에 수록된 홍직필의 연보 중 76歲條 6월에 전문이 수록되었다.¹²⁾

문집 외에도 홍직필의 상소가 수록된 책은 승정원일기와 실록을 들 수 있다. 승정원일기에 수록된 홍직필의 상소는 <표 2>에서 파악된 바와 같이 총 13편이다. 이 중 간본에 수록되지 않은 상소는 2편, 국중본에 수록되지 않은 상소는 1편이며, 국중본에는 수록되었으나 승정원일기에는 수록되지 않은 상소 역시 1편이 있다. 간본에 수록되지 않은 상소 2편은 앞서 살펴본 1819년 포증소, 1851년 6월 사직소로 이미 언급하였기에 간본과 국중본에 함께 수록되지 않은 1편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 하겠다. 승정원일기 중 홍직필의 상소가 처음 확인되는 시기는 1808년 7월이다. 이 상소는 幼學 金鼎進을 필두로 177명의 유생이 辛壬土禍 때 화를 입었던 노론 4대신 외에 다른 신하들을 위해서도 祠宇를 세워서 합사해주기를 청하는 請願疎로, 이때 홍직필은 다른 177명의 유생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엄밀하게 분류하면 홍직필이 직접 작성하여 임금에게 올린 소가 아니기에 간본과 국중본에 수록할 필요가 없는 글이기에 문집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승정원일기에 실린 1808년 상소는

10) 『承政院日記』 2518책(탈초본 122책) 철종 2년(1851) 6월 24일 18/20기사. “祭酒洪直弼疏略曰, 臣風痺之症, 近益添劇, 神氣虛眩, 省識全迷, 所不絶者, 喉下一縷耳. 乞稟東朝, 將臣所被國子·經筵兩銜, 竝賜刊汰. 臣有區區衷積, 謹茲仰暴. 臣於己酉六月, 猥蒙下詢, 以殿下嗣位後孝定殿·徽定殿祝式屬稱, 臣以繼序之地 …”

11) 국중본 15冊 『孝定殿徽定殿敬祀式議 己酉六月二十五日禮郎邊亨淳』.

12) 『梅山集』 卷53 『年譜』, 76歲條 六月. “… 戊寅(6월23일)上疏陳慰. 兼辭本兼諸職, 仍陳所懷. 批曰省疏具悉卿懇. 此是莫重莫大之典禮也. … 此豈卿之所失耶. 卿其安心. 勿復以此煩提.”

홍직필이 66세 이후 올린 문집의 사직소 11편을 통해서 알 수 없는 홍직필의 중장년 시기의 정치적 견해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실록에 수록된 홍직필의 상소는 승정원일기와 달리 단 3편에 불과하다. 이는 실록이 사초, 승정원일기, 의정부등록 등 다양한 자료를 모두 모은 후, 수많은 글의 삭제와 압축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2차 자료인 점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실록에 수록된 3편의 상소는 철종에게 효정전·휘정전의 축식의 속칭을 잘못 헌의한 죄로 벌을 청하는 상소 1편과 헌종과 철종에게 각각 올린 사직소 각 1편이며 그 중 철종에게 올린 사직소는 기존 972자의 상소가 단 1줄로 압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국중본에는 간본과 비교하여 포중소와 사직소 각 1편씩 더 수록되어 있으며 이 포중소는 승정원일기에도 수록되지 않은 것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승정원일기에는 간본과 국중본에 없는 請願疎 1편이 확인하였다. 이를 통하여 간본으로 편차된 것은 홍직필의 상소문 전체 중 일부인 것을 알 수 있으며 국중본에 없는 글이 승정원일기에 실린 사례를 통하여 국중본에 수록된 상소 역시 홍직필의 전체 상소는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차 자료인 실록에 수록된 상소는 간본과 국중본, 승정원일기와 비교하여 극히 일부의 작품만 수록된 점을 통하여 실록만을 가지고 특정 인물 혹은 특정 인물이 작성한 글에 대한 조사, 분석, 연구가 진행될 경우 결코 전체적인 안목의 깊이 있는 분석이 진행될 수 없다는 점 역시 확인하였다.

2.2 啓

啓는 왕에게 뜻을 열어놓고 말하는 글을 지칭한다.¹³⁾ 간본과 국중본 문집에 수록된 啓의 작품 수를 비교한 표는 우측의 <표 3>과 같다. 간본 권4에는 홍직필이 1841년부터 1851년까지 11년간 임금에게 자신의 뜻을 아뢰는 글인 啓 12편이 실려 있다. 啓는 附奏 1편, 書啓 11편로 구성되어 있으며 12편 모두 憲宗과 哲宗이 兼春秋, 假注書, 史官 등을 통해 내린 諭旨에 대하여 홍직필이 답하여 올리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12편의 글은 1841년, 1843년, 1844년, 1849년, 1851년에 작성되었으며 그 중 1843년과 1851년에 각 4편의 서계를 올렸다. 1843년에 올린 서계는 모두 3월에 작성된 것으로 1843년 1월에 올린 상소¹⁴⁾의 연호와

<표 3> 간본·국중본에 수록된 연도별 啓편수

연번	서기	연령	간본	국중본	
				중복 제외	중복 포함
1	1841	66	1	1	1
2	1842	67	-	-	-
3	1843	68	4	4	8
4	1844	69	2	2	3
5	1845	70	-	-	-
6	1846	71	-	1	1
7	1847	72	-	-	-
8	1848	73	-	-	-
9	1849	74	1	1	1
10	1850	75	-	-	-
11	1851	76	4	4	5
12	1852	77	-	3	3
총			12	16	22

13) 賀復徵, 『文體明辯彙選』.

<표 4> 간본·국중본·승정원일기에 수록된 홍직필의 略

연번	간본	국중본	승정원일기
1	卷4 檢閱金益文宣別諭後附奏 辛丑八月六日	15册 檢閱金益文宣別諭後附奏 辛丑八月六日	×
2	卷4 兼春秋金濬宣別諭後書啓 癸卯三月十四日	14册+15册 兼春秋金濬宣別諭後書啓 癸卯三月十四日(중복)	2412책(탈초본119책) 현종9년(1843) 3월15일 6/16기사
3	卷4 直閣金始淵宣別諭後書啓 癸卯三月十五日	14册+15册 直閣金始淵宣別諭後書啓 癸卯三月十五日(중복)	2412책(탈초본119책) 현종9년(1843) 3월15일 8/16기사
4	卷4 左副承旨徐憲淳宣別諭後書啓 同日	14册+15册 左副承旨徐憲淳宣別諭後書啓 同日(중복)	2412책(탈초본119책) 현종9년(1843) 3월15일 11/16기사
5	卷4 假注書卓景秀宣別諭後書啓 癸卯三月二十三日	14册+15册 假注書卓景秀宣別諭後書啓 癸卯三月二十三日(중복)	2412책(탈초본119책) 현종9년(1843) 3월23일 23/28기사
6	卷4 史官張鉉喆宣別諭後書啓 甲辰正月晦日	14册+15册 史官張鉉喆宣別諭後書啓 甲辰正月晦日(중복)	2423책(탈초본119책) 현종10년(1844) 1월30일 15/23기사
7	卷4 史官趙光濬宣別諭後書啓 甲辰八月二十四日	15册 史官趙光濬宣別諭後書啓 甲辰八月二十四日	2430책(탈초본119책) 현종10년(1844) 8월25일 10/21기사
8	×	15册 史官趙然興宣諭存問後書啓 丙午二月二十日	2447책(탈초본120책) 현종12년(1846) 2월20일 12/14기사
9	卷4 龍仁縣令李源一宣別諭後書啓 己酉八月二十二日	15册 龍仁縣令李源一宣別諭後書啓 己酉八月二十二日	2490책(탈초본121책) 철종 즉위년(1849) 8월23일 21/23기사
10	卷4 假注書金慶洽存問後書啓 辛亥正月四日	15册 假注書金慶洽存問後書啓 辛亥正月四日來宣(중복)	2513책(탈초본122책) 철종2년(1851) 1월5일 3/8기사
11	卷4 假注書金慶洽傳諭後書啓 辛亥正月五日	15册 假注書金慶洽傳諭後書啓 辛亥正月五日來宣	2513책(탈초본122책) 철종2년(1851) 1월5일 4/8기사
12	卷4 假注書鄭昌休傳諭後書啓 辛亥四月十七日	15册 假注書鄭昌休傳諭後書啓 辛亥四月十七日來宣	2516책(탈초본122책) 철종2년(1851) 4월17일 10/15기사
13	卷4 兼春秋申學典傳諭後書啓 辛亥十月二十四日	15册 兼春秋申學典傳諭後書啓 辛亥十月二十四日來宣	2523책(탈초본122책) 철종2년(1851) 10월25일 18/20기사
14	×	15册 史官李僖魯宣諭存問後書啓 健陵行辛時 壬子二月二十五日	2527책(탈초본123책) 철종3년(1852) 2월25일 9/10기사
15	×	15册 假注書陳秉燮傳諭後書啓 壬子六月十一日	2531책(탈초본123책) 철종3년(1852) 6월11일 14/16기사
16	×	15册 假注書金鼎獻傳諭後書啓 壬子六月十二日	2531책(탈초본123책) 철종3년(1852) 6월13일 14/17기사

관련된 문제로 소란¹⁵⁾이 일어났을 때 임금이 策勵의 유지를 홍직필에게 내렸던 일과 동년 3월에 있었던 현종의 健陵 行幸 때 龍驤鳳翥亭으로 근처에 살던 홍직필을 부른 것과 관련하여 올린 것이다. 그리고 1851년의 서계 4편은 철종이 사관을 시켜 存問을 하거나 宣諭에 대하여 올린 것이다.

14) 『梅山集』 卷4 「承別諭後辭經筵官召命疏 癸卯正月二十四日」.

15) 『梅山集』 卷53 「年譜」, 68歲條 正月. “… 先是疏入政院. 承旨李公翼, 徐元淳以爲不書僞號還出給. 先生引朱子貼黃故事. 并論前輩已例. 仍舊無改而上之. 疏未及徹. 副應教金穰根上疏. 略曰伏聞日前經筵官洪直弼封章到院. 而政院諉以不書年號. 卽爲退却云. 設令儒賢疏本. 或違格例. 其在朝家禮待之義. 固當微稟呈徹. 而況此事自是儒家故規. 原不可以違格言者乎. 揆以事體. 疎忽莫甚. 臣謂伊日在院承旨. 並施譴罷之典. 仍以此意下別諭. 期於敦召事. 批曰政院事極爲驚駭. 請罷輕矣. 施以譴削. 敦召事亦好矣.”

국중본 14~15책에 수록된 啓는 1841년부터 1852년까지 올린 書啓 총 16편(중복 포함 22편)으로, 간본과 비교하여 4편이 더 많다. 간본에 수록되지 않은 서계는 1846년 1편, 1852년 3편이다. 1846년 2월과 1852년 2월 임금이 健陵 行幸 때 사관을 시켜 存問을 했을 때, 1852년 6월에 山林 抄選을 가지고 상의하려 하자 이를 병을 이유로 사양할 때 서계를 올렸다. 1852년 6월의 서계는 山林 抄選 문제로 철종이 거듭 전유를 보내었는데 이에 대하여 홍직필이 계속 물러서면서 올린 것이기에 철종은 이에 대하여 아쉬움을 표하였다.¹⁶⁾ 앞서 상소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문집의 저자는 문집 내에서 이상적인 인물로써 보여야하기에 상기와 같이 비록 병으로 인하여 거절하였다고는 하지만 임금이 비답에서 아쉬움을 표현할 정도의 일은 문집에 수록할 수 없기에 편찬 과정 중 빠진 것으로 보인다.

문집을 제외하고 홍직필의 啓가 확인되는 책은 승정원일기로 <표 4>와 같이 총 15편이 수록되었다. 국중본에 총 16편의 계가 수록된 것과 비교하면 1편이 적으며, 승정원일기에 누락된 1편은 간본에도 수록된 1841년 8월의 『檢閱金益文宣別諭後附奏 辛丑八月六日』이다. 1841년의 附奏는 홍직필이 1841년 7월에 경연관 8월에 사헌부 지평이 제수된 후 헌종이 다시 전유(傳諭)¹⁷⁾함에 따라 홍직필이 준례에 따라 부주할 수가 없으므로 이 글을 써서 사관에 주어서, 복명하는 날에 승정원에 올려 아뢰게 하였고, 결과 간본과 국중본에 수록된 글이 승정원일기에는 빠지게 된 것이다.

2.3 議

議는 의논하여 일의 적절함을 살피는 글이다.¹⁸⁾ <표 5>와 같이, 간본 권4에는 1843년부터 1851년까지 9년간 임금이 물은 대책에 대하여 의논하는 글인 議 7편이 수록되어있다. 헌의의 주된 내용은 헌종 비인 孝顯王后의卒哭 후에 大殿의 평상시 복식, 綏陵을 친장한 뒤 대왕대비전이 시마복을 입어야 하는지의 여부, 헌종을 祔廟한 뒤에 眞宗을 祧遷해야 하는지의 여부, 경연에서 강할 책 등과 같은 하문에서처럼 祝式이나 服制, 경연 자료에 대한 것이어서, 홍직필이 예학과 학문에

<표 5> 간본·국중본에 수록된 연도별 議편수

연번	서기	연령	간본	국중본	
				중복 제외	중복 포함
1	1843	68	1	1	1
2	1844	69	-	1	1
3	1845	70	-	-	-
4	1846	71	1	1	2
5	1847	72	-	-	-
6	1848	73	-	-	-
7	1849	74	1	3	3
8	1850	75	2	3	3
9	1851	76	2	2	2
총			7	11	12

16) 『梅山集』卷53 『年譜』, 77歲條 六月. “...庚寅. 史官以山林抄選來詢. 上書啓辭. 辛卯又遣史官宣諭問疾. 仍詢抄選事. 回啓. 諭曰覽卿附奏. 知有慎節. 可勝慮念. 然神明所相. 當有勿藥之效. 卿其安心調理. 以副朝野之望焉. 至於抄選事. 有國之大政也. 此事之詢及儒賢. 既有列聖朝故事. 故予所以遵而行之者也. 卿之以前前邦禮事爲引. 豈非萬萬過當之舉乎. 以卿宿德. 思所以壽吾國脈者. 薦賢舉賢以外. 更有他何事乎. 卿欲酬報先朝禮遇之盛. 則予小子今日所詢. 豈忍無一言可否乎. 卿其厚諒. 有以復之.”

17) 『憲宗實錄』卷8 헌종 7년8월6일 3번째 기사. “教曰 士之讀聖人書. 學聖人道者. 豈但爲高尚其志. 獨善其身而已哉? ... 茲遣近侍. 敷示至意. 爾勿固辭. 用副延佇事. 遣史官. 傳諭于經筵官洪直弼處.”

18) 賀復徵, 『文體明辯彙選』.

정통하였다고 평가받았음을 알 수 있다.

국중본 제15, 197책에 수록된 議는 중복 포함 12편, 중복 제외 11편으로, 간본보다 4편(1844년에 1편, 1849년에 2편, 1850년에 1편)이 더 많다. 그 중 1844년 9월의 현의는 한원진의 문인이자 송시열의 玄孫인 雲坪 宋能相(1709~1758)의 復逸이 마땅한가에 관한 현의를 <표 6>과 함께 살펴보겠다. 송능상은 掌書까지 올랐으나 사후 1809년 3월에 遺逸에서 삭제하고 문집 각판을 파기할 것을 순조가 명하였던 인물이다.¹⁹⁾ 이에 대하여 35년 후인 1844년에 송능상의 유일을 회복시킬지에 대한 의논이 나오게 되었고 이를 흥직필이 현의하게 된 것이다. 이후 송능상의 유일은 회복되었으나 1851년 9월부터 10월까지 계속하여 그의 逸名을 삭제하여 달라는 유생들의 상소가 있었다. 이렇게 세간의 평판이 크게 갈리는 인물에 대한 復逸 관련 현의는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에 현의를 그대로 실은 후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편찬자들에 의하여 편찬 과정 중 삭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6> 간본·국중본·승정원일기·실록에 수록된 흥직필의 議

연번	간본	국중본	승정원일기	실록
1	卷4 孝顯王后喪卒哭後大殿燕居服笠制黑白議 癸卯十一月十三日	15册 孝顯王后喪卒哭後大殿燕居服笠制黑白議	2422책(탈초본119책) 현종9년(1843)12월10일 무신 16/19기사	×
2	×	15册 宋能相復逸當否議 甲辰九月五日	2432책(탈초본119책) 현종10년(1844)10월30일 계해 18/26기사	×
3	卷4 綏陵遷奉時大王大妃殿服總議 丙午五月八日	15册+197册 綏陵遷奉時大王大妃殿服總議 丙午五月八日禮郎(중복)	2450책(탈초본120책) 현종12년(1846)5월12일 병인 7/11기사	×
4	卷4 當宁嗣位後東朝位號加上當否議 己酉六月八日	15册 當宁嗣位後東朝位號加上當否議 己酉六月八日禮郎	2487책(탈초본121책) 철종즉위년(1849)6월16일 임오 12/14기사	×
5	×	15册 孝定殿徽定敬祀式議 己酉六月二十五日禮郎邊亨淳	2488책(탈초본121책) 철종즉위년(1849)7월12일 정미 21/74기사	『哲宗實錄』卷1, 즉위년 7월12일 정미 7번째 기사
6	×	15册 全溪大院君 完陽府大夫人 鈴原府大夫人墓所改封 稱議 己酉八月七日	2490책(탈초본121책) 철종즉위년(1849)8월9일 갑술 10/17기사	『哲宗實錄』卷1, 철종 즉위년 8월9일 갑술 3번째 기사
7	×	15册 擬獻揀擇議	×	×
8	卷4 經筵繼講冊子稟定議 庚戌十月二日修撰李升洙來問	15册 經筵繼講冊子稟定議 庚戌十月二日修撰李升洙來問	2510책(탈초본122책) 철종1년(1850)10월10일 무진 20/22기사	×
9	卷4 經筵繼講冊子稟定議 庚戌十一月二十七日修撰姜滌來問	15册 經筵繼講冊子稟定議 庚戌十一月二十七日修撰姜滌來問	2512책(탈초본122책) 철종1년(1850)12월2일 기미 15/21기사	×
10	卷4 憲宗大王祔廟後眞宗大王祧遷當否議 辛亥五月十八日禮郎申學典	15册 憲宗大王祔廟後眞宗大王祧遷當否議 辛亥五月十八日禮郎申學典	2518책(탈초본122책) 철종2년(1851)6월9일 갑자 10/12기사	『哲宗實錄』卷3, 철종 2년 6월9일 갑자 1번째 기사
11	卷4 經筵繼講冊子稟定議 辛亥十一月二十九日修撰趙在應來問	15册 經筵繼講冊子稟定議 辛亥十一月二十九日修撰趙在應來問	2525책(탈초본122책) 철종2년(1851)12월8일 기축 2/4기사	×

19) 『純祖實錄』卷12, 순조 9년3월29일 2번째 기사. “命故掌令宋能相削逸, 文集毀板。大臣以儒生尹遇大等疏覆啓言 “侮賢壞禮, 不可以儒者言。請毀其刊書之板, 削其抄選之職。” 從之。”

1849년 7월과 8월의 현의는 각 魂殿과 徽定殿의 祝式 관련, 全溪大院君 및 대부인의 묘소를 改封築할 때 고유문 중 속칭과 관련된 것으로, 이들은 앞서 언급한 1851년 6월 상소²⁰⁾에서 축식과 관련해서 잘못이 있기에 벌을 청한다는 내용에서 알 수 있듯 해당 현의에 오류가 있었고 이 때문에 편찬 중에 삭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1850년 6월의 『擬獻揀擇議』는 간본과 승정원일기에 없는 국중본에만 수록된 현의이다. 동년 6월 憲廟 小祥 후 가례 간택의 논의가 있어서 홍직필이 처음에는 간택과 관련된 현의를 올리고자 하였는데 쓰이지 않았고 또 내용이 크게 정도를 지키지 않았기에[太母守經] 현의 올리기를 그만둔 것이다.²¹⁾ 임금에게 올리지 않았으므로 승정원일기에 실리지 않은 것이고, 또한 내용에서도 정도가 지켜지지 않은 점이 이유가 되어 편찬 과정 중에 간본에서 빠졌으며, 간본 권53의 연보에서도 언급되지 않고 있다.

문집과 승정원일기 외에도 홍직필이 작성한 현의는 앞서 살펴본 1849년 7월과 8월의 현의와 함께 憲宗大王을 부모(祔廟)한 후 眞宗大王을 조친(祧遷)하는 典禮와 관련된 1851년 6월의 현의, 이상 총 3편이 철종실록에 수록된 것을 확인된다. 국중본과 승정원일기에는 3편의 현의가 모두 확인되지만 간본에는 1849년 7월과 8월의 현의 2편이 상기에 논한 것처럼 누락되었다. 실록에 수록된 현의의 수가 다른 책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이유는 앞서 상소에서 확인했듯이 실록이 2차 자료인 점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2.4 筵說

왕의 諮問에 답하는 筵說은 간본 권4에 『輻對筵說』 단 1편이 실려 있으며, 그 내용은 1843년 3월 15일 현종이 健陵 行幸 때 龍驤鳳翥亭에서 당시 경연관이었던 홍직필을 부르자, 알현하고 학문의 요체를 진달한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輻對筵說』은 간본, 국중본, 승정원일기²²⁾ 모두에 전문이 실려 있으며 현종실록에도 홍직필이 현종을 알현한 기록이 남겨져 있다.²³⁾

이상, 간본, 국중본, 승정원일기, 실록에 수록된 홍직필의 주의류를 疏·啓·議·筵說 문체별로 분류하여 간본으로 편차된 글과 그렇지 않은 글의 통계, 간본으로 편차되지 않은 주의류의 경우에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상을 정리하면, 홍직필의 현의는 간본에 7편, 국중본에 11편, 승정원일기에 10편, 철종실록에 3편이 수록되었으며 간본과 승정원일기에 없는 현의 1편이 국중본에만 수록되었고 실록에 수록된 현의가 3편에 불과하나 간본 문집에서 삭제된 작품이 실록에 수록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서 각각의 판본 중 홍직필이 작성한 원글에 가장 가까운 것은 국중본이며 가장 많은 글을 수록한 것 역시 국중본임을 알 수 있었으며, 국중본 다음으로는 승정원일

20) 국중본 15册 『陳慰謙辭祭酒經筵官仍陳所懷疏 辛亥六月二十三日』

21) 국중본 15册 『擬獻揀擇議』. “... 憲廟小祥後 有嘉禮揀擇之議. 故始擬獻議乃甫 仍太母守經而止 ...”

22) 『承政院日記』 2412책(달초본119책) 현종 9년(1843) 3월15일 무오 16/16기사.

23) 『憲宗實錄』 卷10, 현종 9년3월15일 1번째 기사. “上詣龍驤鳳翥亭, 召見經筵官洪直弼.”

기, 간본 문집, 실록 순이었다. 이는 일반적인 문집 혹은 특정 인물의 정치적 업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경우 간본 문집 외에 편찬 원고를 묶은 필사본을 확보한 상태로 연구를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간본문집과 함께 승정원일기, 실록을 함께 교차 비교분석하여도 필사본의 부재를 어느 정도는 메울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리고 홍직필에게 부여해야 할 이상적인 인물상에 오점이 될 수 있는 기록이 설령 승정원일기나 실록에는 남아있더라도 해당 글은 문집 편찬자들에 의해 삭제되었으며 홍직필이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작성해준 포증소 등도 모두 삭제된 것을 밝혔다. 이를 통해서 간본 문집만을 중심으로 인물 연구, 혹은 인물이 남긴 글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될 경우 누락된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기에, 간본 문집과 승정원일기, 혹은 기타 인물 관련 자료를 모두 분석해야 인물에 대한 전체 면모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3종의 책에 수록된 홍직필의 疏·啓·議·筵說을 분석하면서 확인하였다.

3. 書說類의 구성 및 특징

書說類는 문자를 빌려서 주위 사람에게 소식이나 의견을 전하는 응용문 성격의 산문으로 주로 편지를 일컫는다. 그 명칭은 書說類 외에도 書牘類·書簡類·書信類·尺牘類·簡札類 등과 같이 서책 매체의 발달에 따라 매우 다양한 이칭이 사용되고 있다. 편지는 크게 공적 편지와 사적 편지로 구분된다. 춘추 시대 열국이 분쟁하면서 사신의 왕래가 빈번해짐에 따라 공적 편지의 왕래가 많아졌으며 한나라로 들어오면서 사적 편지의 교류가 발달하게 되었고 唐宋 이후 공적 편지와 사적 편지가 모두 발달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서설류는 삼국시대에 처음 등장한 후 고려를 거쳐 조선에 이르러서는 성리학의 발달과 함께 사적 편지 중 학술적 내용을 개진하는 편지가 크게 발달하였다.²⁴⁾ 또한 李書九의 『惕齋書牘』, 金正喜의 『阮堂尺牘』과 같이 편지만 별도로 엮어 책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전해지는 편지는 문집에 수록되어 유통되는 경우가 대다수임을 볼 수 있으며, 홍직필의 편지 역시 간본에 1,017편이 수록되어 전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1 간본과 국중본의 구성²⁵⁾

간본 『梅山集』 卷5~26에는 홍직필이 17세 되던 1792년부터 사망하던 1852년까지 스승·선배·知舊·院儒·門中·親族 등 410명과 교류한 총 1,017편의 편지가 수록되었다. 편지는 간본 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학과를 가리지 않고 다수의 후기 성리학자들과 교류하였던 홍직

24) 심경호, 『한문 산문의 미학』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2013), 454-473.

25) 간본과 국중본에 수록된 홍직필의 편지에 대한 내용 분석 및 당색별, 교유 관계별 주요 특징에 대한 도출은 추후 연구에서 진행하도록 하겠다.

필의 행적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편찬 원고의 합집인 국중본에 수록된 편지는 총 8,288편이며 수신자는 956명이다. 그 중 중복 편지는 2,100편(25.3%)으로, 중복 빈도는 대체로 2~3차례 가량이며 5차례 이상 중복되는 경우는 없었다. 이러한 중복 편지를 통하여 편찬 기간 중 계속 편지가 교정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국중본 편지 8,288편은 전체 224책 중 133책(제16~133, 135~140, 146, 178, 185, 212~216, 221책)에 분산되어 있으며, 그 중 8,182편(98.7%)은 제16~140책에, 나머지 106편은 제146, 178, 185, 212~216, 221책에 수록되었다. 나머지 106편의 편지가 제146책 이하 9책에 분산된 이유는 시부류에서와 마찬가지로 교정 원고를 한 종의 책으로 묶을 때 다른 문체의 글과 섞여있던 편지를 선별 분류한 다음 장책하지 않았던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표 7> 국중본에 수록된 연도별 書贈 편수

연번	서기	나이	중복 제외	중복 포함	연번	서기	나이	중복 제외	중복 포함
1	1824	49	1	1	16	1839	64	1	1
2	1825	50	1	1	17	1840	65	1	1
3	1826	51	-	-	18	1841	66	-	-
4	1827	52	1	1	19	1842	67	1	1
5	1828	53	-	-	20	1843	68	1	1
6	1829	54	-	-	21	1844	69	2	4
7	1830	55	-	-	22	1845	70	4	5
8	1831	56	-	-	23	1846	71	12	24
9	1832	57	-	-	24	1847	72	8	21
10	1833	58	1	1	25	1848	73	10	29
11	1834	59	2	3	26	1849	74	3	4
12	1835	60	-	-	27	1850	75	10	22
13	1836	61	-	-	28	1851	76	9	12
14	1837	62	2	2	29	1852	77	-	-
15	1838	63	4	6	30	未詳		95	117
						총		169	257

간본과 국중본에 수록된 서설류에서 보이는 가장 큰 차이점은 국중본에 수록된 書贈 257편이 간본에는 모두 산삭된 점이다. <표 7>을 통해 확인되는 것처럼 국중본에 수록된 書贈은 홍직필이 49세 되던 1824년부터 사망할 때까지 문인, 친인척들에게 스스로에 대한 경계와 성실을 장려하던 글로, 대체로 편지와 비슷한 형식을 지니고 있다. 국중본에 수록된 257편 중 제139~146책에 247편, 제148, 212, 214, 216, 217책에 10편이 수록되어 있으며, 중복은 88편이다. 서증은 비록 간본에 수록되지 못하였지만 수록 여부와 관련하여 문하 간의 논쟁은 편찬 작업 마지막까지 있었으며, 서증의 수록 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편찬 과정에서 간본으로 편차하기 위한 글의 편집과 취사 과정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간략히 살펴보면 편간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한운성은 스승이

남긴 서증의 고유함을 이유로 들어서 割附 작업이 이미 완료되었다라든가 서증의 글 몇 편은 인쇄 시에는 몇 십 판 정도만 추가될 뿐이니 작은 노력 기울이기를 주저하여 대사를 그르칠 수 있는가²⁶⁾라는 논지로 서증의 수록을 반대하는 소회면의 주장에 반박하는 편지를 조병덕에게 보낼 정도로 강하게 수록의 당위성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1863년 9월 한운성이 사망하면서 결국 1866년 봄에 간인된 『梅山集』에는 모든 서증이 삭제되었다.

3.2 연도별 작품 수

간본에 수록된 천여 편의 편지와 비교할 만한 자료를 갖춘 이본은 국중본이 유일하다. 양 본에 수록된 편지의 비교를 위해서 우선 간본 1,017편과 국중본 8,288편의 편지를 연도별로 분류하여 연도별 편지 수를 대조하여 시기별 특징 등을 도출하려 한다.

<표 8>은 양 본의 연도별 편지 수를 비교한 것으로, 간본과 국중본을 분리하여 결과를 제시하였고 그 중 국중본은 중복 여부에 따라 구분하였다. 각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면 ‘간본 편수’는 실제 간본에 수록된 편지 수이며, 국중본 편지는 중복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간본으로 편차된 편지 수인 ‘간본에 수록’, 국중본에서만 확인되는 편지 수인 ‘국중본에만 수록’과 두 항목의 합계인 ‘소계’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실제 간본에 수록된 편지 수인 ‘간본 편수’ 바로 옆에 ‘간본에 수록(중복 제외)’ 항목을 배치하여 간본 편지와 국중본 편지 중 간본으로 편차된 편지 간 직관적 비교를 시도하였다.

국중본에 수록된 편지는 중복 포함 총 8,288편, 중복 제외 시 6,188편이다. 국중본에만 수록된 편지는 총 6,083편, 중복 제외 시 5,053편이고, 국중본 내 작품 중 간본에 대응되는 작품은 중복 포함 시 2,205편, 중복 제외 시 1,003편과 1,135편으로 나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중 중복 제외 시 편지 수가 1,003편과 1,135편으로 나뉘는 것은 편지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2편 이상의 편지가 간본에는 1편으로 합쳐져 수록된 경우에 기인한다. 2편 이상의 편지가 편찬 중 1편으로 편집되어 간본에 수록되는 경우는 문집 편찬 과정에서 종종 확인되는 편집 방식으로, 동일 인물과 장기간 祭禮를 포함하여 특정 주제의 편지를 주고받는 경우 편찬자들이 해당되는 편지를 한 편으로 편집하여 간본에 수록하였다. 매산집에서는 국중본 제28, 42, 127, 129책에 수록된 『答李子善 戊子六月七日』, 『答李子善 己丑午月九日』, 『答李子善 己丑臘旬三』, 『答李子善 庚寅閏月念一日』 4편의 편지²⁷⁾가 간본 卷23의 『答李在慶』 1편으로 편집된 것을 해당 사례로 들 수 있다.

26) 『立軒集』 卷6 『與肅齋趙丈 壬戌八月』. “… 且書贈之名. 前輩文集所無. 而特出吾先師誘進後學底滿腔苦血. 則全沒名目. 恐甚未安. 純汝之必以各欲添入. 不勝其多爲言者. 殆近於因噎廢食. 而在運聖則以所贈運聖者. 偶入新陽編摩. 故未及固爭於會勸之日. 此亦內不足而有所避嫌也. 不覺追愧. 伏願說與純汝. 使之因其名目. 添入幾段. 則雖或曰割附已了. 難於變動. 此不過一二篇幾十板. 則豈可計此小勞而致有後議乎. …”

27) 국중본 제28, 42, 127, 129책 『答李子善 戊子六月七日』, 제28, 42, 127, 129책 『答李子善 己丑午月九日』, 제28, 42, 127, 129책 『答李子善 己丑臘旬三』, 제28, 42, 127, 129책 『答李子善 庚寅閏月念一日』과 같이 4편의 편지가 4책에 각각 수록되어 있다.

<표 8> 간본·국중본에 수록된 연도별 편지 수

연번	서기	연령 (세)	간본 편수	국중본(중복 제외)			국중본(중복 포함)			
				간본에 수록	국중본에만 수록	소계	간본에 수록	국중본에만 수록	소계	
1	1792	17	1	1	1	-	1	2	-	2
2	1793	18	-	-	-	4	4	-	4	4
3	1794	19	-	-	1	2	3	1	3	4
4	1795	20	-	-	-	1	1	-	1	1
5	1796	21	3	3	3	2	5	5	2	7
6	1797	22	-	-	-	7	7	-	8	8
7	1798	23	4	4	4	4	8	9	4	13
8	1799	24	8	8	10	30	40	15	33	48
9	1800	25	4	4	5	22	27	10	26	36
10	1801	26	3	2	4	12	16	8	14	22
11	1802	27	6	6	6	16	22	13	18	31
12	1803	28	13	13	13	34	47	32	44	76
13	1804	29	19	19	23	62	85	54	85	139
14	1805	30	14	14	16	52	68	38	78	116
15	1806	31	16	16	18	40	58	51	66	117
16	1807	32	8	8	8	56	64	20	77	97
17	1808	33	28	27	30	72	102	77	103	180
18	1809	34	7	7	11	56	67	21	65	86
19	1810	35	14	14	19	64	83	36	83	119
20	1811	36	19	19	22	69	91	40	86	126
21	1812	37	12	12	13	59	72	24	76	100
22	1813	38	12	12	15	76	91	29	94	123
23	1814	39	17	17	19	89	108	37	109	146
24	1815	40	12	12	11	82	93	25	100	125
25	1816	41	29	29	29	61	90	54	79	133
26	1817	42	15	15	17	62	79	40	81	121
27	1818	43	18	18	19	51	70	30	65	95
28	1819	44	24	24	24	59	83	43	81	124
29	1820	45	10	10	11	73	84	19	88	107
30	1821	46	19	19	20	69	89	41	88	129
31	1822	47	17	17	18	87	105	29	116	145
32	1823	48	19	19	21	92	113	39	108	147
33	1824	49	37	36	37	104	141	74	135	209
34	1825	50	19	19	28	74	102	47	91	138
35	1826	51	23	23	31	87	118	50	101	151
36	1827	52	36	36	46	74	120	87	87	174
37	1828	53	21	21	29	81	110	50	108	158
38	1829	54	26	26	34	94	128	66	128	194
39	1830	55	20	20	23	114	137	52	138	190
40	1831	56	19	18	22	103	125	39	128	167
41	1832	57	19	18	20	105	125	38	138	176
42	1833	58	15	15	17	93	110	36	119	155
43	1834	59	22	22	23	112	135	44	134	178
44	1835	60	21	21	21	102	123	37	118	155

연번	서기	연령 (세)	간본 편수	국중본(중복 제외)			국중본(중복 포함)			
				간본에 수록	국중본에만 수록	소계	간본에 수록	국중본에만 수록	소계	
45	1836	61	13	13	16	82	98	35	90	125
46	1837	62	13	13	14	92	106	23	105	128
47	1838	63	14	14	14	95	109	26	111	137
48	1839	64	12	12	13	101	114	22	117	139
49	1840	65	16	15	16	123	139	32	142	174
50	1841	66	20	20	23	110	133	40	125	165
51	1842	67	17	16	16	100	116	29	117	146
52	1843	68	25	25	27	120	147	54	137	191
53	1844	69	13	13	16	117	133	33	132	165
54	1845	70	18	18	21	120	141	37	136	173
55	1846	71	21	20	20	130	150	39	152	191
56	1847	72	21	21	22	160	182	46	179	225
57	1848	73	27	26	29	152	181	55	178	233
58	1849	74	35	34	37	250	287	73	279	352
59	1850	75	46	46	48	259	307	92	292	384
60	1851	76	21	21	24	218	242	41	244	285
61	1852	77	25	25	25	95	120	46	107	153
62	未詳		11	7	12	121	133	20	130	150
총			1,017	1,003	1,135	5,053	6,188	2,205	6,083	8,288

하지만 국중본 편지 중 간본에 대응되는 편지가 1,003편과 1,135편 일어나게 된 현상은 2편 이상의 편지가 1편으로 편집된 마지막 편집본, 즉 定稿本이 누락된 것에서 연유한다고 볼 수 있겠다.

2편 이상의 편지가 편찬 과정에서 1편으로 편집된 사례는 국중본에 223편(중복 포함 433편)²⁸⁾이 확인되며 223편을 상기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간본 편지 1편과 대응시키면 132편이 줄어든 91편이 된다. 즉, 국중본에 수록된 편지 중 간본의 내용과 대응되는 편지는 1,135편이며 이들을 최종 결과물인 간본 1편에 맞추어 편수를 다시 계산하게 되면 132편이 줄어 1,003편이 되는 것이다.²⁹⁾ 이와 같은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국중본에 수록된 원고가 비록 방대하지만 실제로는 매산집 편찬 중 발생된 모든 원고가 수합된 것은 아니며, 이 같은 맥락에서 마지막 교정원고인 정고본의 전부 혹은 일부가 국중본에 누락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추가로 간본 편지 1,017편과 국중본 편지 중 간본으로 편차된 1,003편을 비교해보면 국중본에 누락된 편지는 14편에 불과하지만 가시적으로 파악되지 않는 상당량의 편지 교정 원고가 추가로 누락되었을 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국중본에 누락된 14편의 서목은 <표 9>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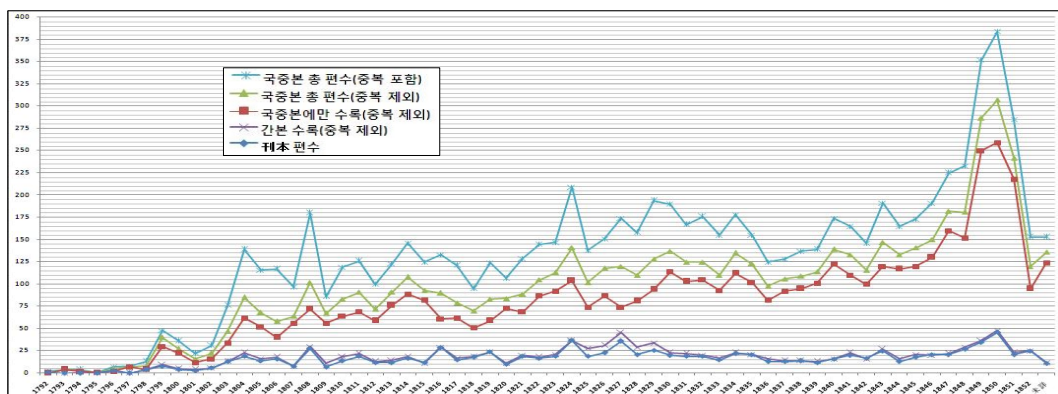
28) 중복 포함 433편에 해당하는 편지의 서목은 이형유, “洪直弼의 『梅山集』 편찬과 간행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20) 중 <부록 3>을 참조.

29) 단, 132편의 편지는 중복 작품이 아니기에 전체 작품 대비 중복 작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려주는 중복율을 계산하는 등 대부분의 경우에는 1,135편을 기준으로 하고, 간본과 국중본 간 누락된 편지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경우에만 1,003편을 기준으로 하겠다.

<표 9> 간본에서만 확인되는 편지의 서목

연번	서기(나이)	권차	서목명
1	1824(49)	卷9	答李子岡
2	1832(57)	卷13	答申仲立在植○壬辰
3	1801(26)	卷16	答安汝必壽祿○辛酉菊月
4	1831(56)	卷17	答白參奉宗倫○辛卯六月
5	1808(33)	卷20	答金景會戊辰
6	[미상]	卷20	與慎子有必祐
7	1840(65)	卷21	答鄭元卿胄錫○庚子
8	1842(67)	卷21	答或人 壬寅
9	1846(71)	卷21	答或人 丙午
10	[미상]	卷25	答白奎烈武洪
11	[미상]	卷25	答白奎烈武洪
12	1848(73)	卷26	答良洞李氏門中戊申
13	[미상]	卷26	答金氏門中金燦祖問目
14	1849(74)	卷26	答松江院儒己酉

다시 <표 8> 연도별 작품 수를 통하여 국중본에 수록된 편지의 구성 상 특징을 계속 살펴보면, 1792년 박윤원에게 보낸 편지를 시작으로 사망하는 1852년까지 62년간의 편지가 국중본에 수록되었으나, 간본에는 1793~1795년, 1797년의 편지는 산절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복 제외 시 총 6,188편을 홍직필이 편지를 작성한 62년으로 나누면 홍직필은 매년 평균 99.9편의 편지를 썼으며 그 중 연평균 18.3편만 간본에 수록되고 나머지 81.6편은 편찬 중 산삭되어 국중본에서만 볼 수 있다. 이 같은 간본과 국중본에 수록된 편지 수의 차이는 <그림 1>의 간본·국중본에 수록된 연도별 편지 수 그래프를 통해서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간본·국중본에 수록된 연도별 편지 수 그래프

홍직필은 20대 초반부터 당대 주요 선배학자들과 교유 관계를 맺고 보다 폭넓은 학문 체계를

구축하는데 매진하였는데, 이러한 그의 행적은 간본에는 산삭되었지만 국중본에는 남겨진 宋煥箕, 尹聚東, 任魯, 李直輔, 趙有善 등과 나눈 상당수의 편지³⁰⁾를 통하여 확인된다. 이어 1801년 홍직필은 26세가 되면서 사마시에 응시하여 초시에 합격하나 회시에는 실패하면서 이후 과거에 절대 응시하지 않고 오로지 경전 공부에만 몰두하게 되는데, 이러한 행적과 맞물려서 1801년(26세) 국중본에 수록된 홍직필의 편지(중복 제외)는 16편인데 반하여 1803년(28세)에 47편이었고, 1804년(29세)부터 1835년(60세)까지는 연평균 99편 내외의 편지를 썼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홍직필은 말년에 학파를 가리지 않고 많은 후기 성리학자들과 교류³¹⁾하면서 당시 유럽의 중심인물로서 유럽 전체의 화합에 주목하고 실천하였고, 이에 따라 1836년(61세)부터 1852년(77세)까지 연평균 159.1편의 편지를 보내면서 교류하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중 홍직필이 74세부터 76세까지 3년간 보낸 편지의 양은 836편으로 국중본에 수록된 편지의 13.5%에 달한다. 이렇게 홍직필의 행적은 국중본 편지 수의 가감과 맞물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반하여 간본에는 1801년(26세)에 작성된 편지는 3편, 1803년(28세)에는 13편, 1804년(29세)부터 1835년(60세)까지는 연평균 19편의 편지가 수록되었다. 그리고 1836년(61세)부터 1852년(77세)까지는 연평균 21편, 홍직필이 74세부터 76세까지 3년간 보낸 편지는 102편이 선별, 수록되었다. 또한 간본에는 큰 차이 없이 연평균 20편 안팎의 편지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 때문에 말년에는 간본과 국중본 간 편지 수 차이가 더욱 커지는 것을 그래프와 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전체 편지의 약 1/5정도만이 수록된 간본 편지가 그만큼 엄정하게 선별된 것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만, 그 선별 기준을 만들고 전체 편집 과정을 관할한 것은 저자가 아닌 편찬자들이기에, 작품의 선별과 편집에 편찬자들의 판단과 의도가 반영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전체의 4/5 분량에 해당하는 산삭된 모든 편지가 세상에 공개하면 안 되는 종류의 것이거나, 문집에 수록할 정도는 아닌 내용 혹은 사적인 내용이라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렇다면 6,188편 중 약 5천 편의 편지를 산삭한 이유는 경제적 여건이 기여한 바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낙론의 도통을 있고 있으며 산림학자로서 학문적 명망과 재력을 갖춘 홍직필과 같은 인물의 문집을 간인할 때도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³²⁾ 남겨진 글 중 최대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들만 선별³³⁾하게 된

30) 宋煥箕: 국중본 제16책 「上性潭宋公 丁巳五月」, 「上性潭宋公 戊午八月十日」, 「上性潭宋公 己未四月二十三日」/ 尹聚東: 제16책 「上擬窩尹丈聚東 丙辰八月」/ 任魯: 제17책 「上穎西任丈 己未九月」, 「上穎西任丈 己未十月」, 「上穎西任丈 己未十一月」, 제17책 「上穎西任丈 庚申三月」, 「上穎西任丈 庚申至月」, 「答白英輔 庚申七月」/ 李直輔: 제16책 「上中洲李公 己未八月」, 「答中洲李公 己未十月」/ 趙有善: 제19책 「與蘿山趙公有善 ○己未六月」.

31) 홍직필과 교류한 당대 성리학자 중 특히 관계가 깊었던 이들은 다음과 같다: 權達善·金基敍·金泰根·朴命璧·朴宗興·白慶楷·吳熙常·俞莘煥·李源長·李義秉·李在慶·李載毅·李晉淵·任魯·任翼常·任憲晦.

32) 『鼓山集』卷3 「答蘇純汝 輝冕○乙丑」. “...爲門人者, 孰不欲尊閣, 而力所不及, 不及於門人, 恐不至於別紙所謂取禍之云也. 苟廣布於他人, 愚則雖不與於一帙之分, 不以爲憾也. 紙本粧黃之草率, 而見侮取笑, 勢所固然. 主張速印, 卽溪丈及老兄與賤子三數人之見也. 笑侮之歸, 安敢辭也. ...”

33) 『臨齋日記』 「丁巳○四月十九日」. “或雨, 始檢遺稿存刪之役. 肅齋常曰, 垂後文字, 以精約爲主. 先師遺集浩漢, 不翅充棟汗牛, 當百存一二, 用極其精. 此吾輩責耳. 今番校正於書牘記序墓道諸文, 或經禮及爲學之方, 其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간본 문집으로 편찬 유통되는 문집들은 편찬자들의 주관에 따라 작품의 취사선택이 발생하고 편집된 저작이라고 할 수 있기에 편찬의 결과물인 간본에 저자의 의도와 사상적 지향점을 온전히 담겨졌다고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문집을 통하여 문집 저자의 가치관, 저자를 둘러싼 사회상, 문집에 수록된 시나 편지에 대한 문학적·학문적 분석이 필요한 연구를 진행할 때는 반드시 편찬자들에 의하여 선별되고 완성된 간본 문집뿐만 아니라 저자의 원고가 최대한 원본에 가깝게 남겨진 필사본도 함께 참조해야함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전체 편지 대비 중복 편지가 차지하는 비율(중복율)을 살펴보면, 국중본에 수록된 편지는 총 8,288편이며, 중복 제외 시 6,188편, 순 중복 편수는 2,100편(중복율 25.3%)이다. 이 중에서 국중본 편지 중 간본에 편차된 것은 중복 포함 2,205편, 중복 제외 1,135편, 순 중복 편수는 1,070편(중복율 48.5%)이며, 국중본에서만 볼 수 있는 편지는 중복 포함 6,083편, 중복 제외 5,053편, 순 중복 편수는 1,030편(중복율 16.9%)임을 확인하였다. 여기서 국중본 작품 중 간본으로 편차된 작품과 국중본에만 수록된 작품의 중복율이 각 48.5%와 16.9%인데, 이는 편찬자들이 간본에 수록될 작품에 한하여 시간을 들여서 교정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편지의 중복율을 시부류의 중복율(54.2%와 29.7%)과 비교하면 간본에 수록된 작품의 중복율이 그렇지 않은 작품에 비하여 시부류는 2배, 서설류는 3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중복 제외 시 총 작품(6,188편) 중 간본으로 편차된 작품(1,135편) 대비 국중본에만 수록된 작품(5,053편)의 비율이 대략 1.9:8.1을 이루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홍직필이 평생 보낸 편지의 수를 100편으로 환산하면 이 중 간본 문집에 실린 것은 19편 남짓이며 나머지 81편은 산절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현대 연구자들이 간본을 이용하여 인물 및 작품 연구를 진행할 경우 이들이 다루는 대상은 원 저작 중 4/5에서 3/4 정도가 산삭된 것임을 의미한다. 즉, 문집 편찬 시 원고의 선택과 산삭은 저자가 아닌 편찬자들이 한 것이기에 문집의 저자인 개인의 사상적, 학문적 지향성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들이 지닌 의미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간본 문집뿐만 아니라 교정 원고가 그대로 남겨진 필사본 역시 반드시 참고해야만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간본으로 편차된 작품 대비 산삭된 작품의 비율을 서설류(1.9:8.1)와 시부류(2.3:7.7)를 비교하면 시보다는 편지가 편찬 과정 중에 산삭된 작품 수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매산집의 시부류와 서설류 작품 수에 대한 상기와 같은 통계적 수치(전체 작품 중 산삭된 작품의 비율)가 조선 후기의 문집 편찬 경향과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를 참고할 만한 논문으로는 조선 후기 문집 편찬 경향 및 편찬 중 작품의 산삭률에 대하여 언급하는 김수진의 연구³⁴⁾가 확인된다.

言爲後世法者以外，一並刪之。”

34) 김수진, “능호관(凌壺觀) 이인상(李麟祥) 문학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2.08), 1-214.; 김수진, “朝鮮後期 刊本文集의 編輯傾向,” 『규장각』 42(2013. 6), 97-127.

그 중 『규장각』 42집에 수록된 연구는 규장각에 소장된 李植의 『澤堂先生集』과 『澤堂先生遺稿』, 李頤命의 『疎齋集』과 『疎齋先生集』, 申靖夏의 『恕菴集』과 『私稿』, 趙龜命의 『東谿集』과 『乾川藁』, 李胤永의 『丹陵山人

본 연구에서는 매산집 작품 수에 대한 통계적 수치가 조선 후기 문집 편찬 경향과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기에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나, 대략의 편찬 경향을 알아보는 선에서 김수진 연구의 일부 사례³⁵⁾를 참조하여 살펴보겠다. 우선 조선 중후기 문신 金壽恒(1629~1689)의 문집 『文谷集』 발문을 살펴보면, 유고 편찬 과정에서 詩는 6/10, 文은 절반을 산삭하여 간행하였다는 기록³⁶⁾이 확인되고 있으며, 김수진의 연구³⁷⁾에 의하면 李麟祥(1710~1760)의 문집 편찬 과정에서 그의 유고 『雷象觀藁』 중 7/10 정도를 산삭하여 간본 『凌壺集』을 편찬 간행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송시열의 6대손이자 홍직필과 교유 관계였던 宋穉圭(1759~1838)의 경우, 아들 宋欽成이 부친의 유고를 편집 산삭하여 12책을 완성하였으나 집안의 경제력 문제로 간행이 미뤄지다가 문하 제생의 도움으로 1865년 마침내 문집 『剛齋集』이 간행되었다. 그러나 1865년 편찬 당시 권질이 많으면 쉽게 분산되고 보관도 어려우며 보는 사람도 지루하고 번거롭다는 이유로 이미 편집된 12책을 최대한 요약하자는 의견이 나오면서 송치규의 손자 宋騏洙에 의하여 12책의 재편집 및 산삭이 진행하게 되었다. 결과 詩, 疏 이하 문체 중 일부는 절반을, 일부는 2/3 가량을 산삭하였고 墓文, 行狀은 작품의 취사선택 작업[存拔]을 진행하게 되면서 이미 간인을 위해 정리되었던 12책 중 5책 분량의 작품이 다시 산삭되었고 결과 7책만이 간인되었다.³⁸⁾ 송치규가 남긴 전체 유고가 실제로 몇 책 분량이었는지에 대한 단서는 없으나 손자 宋騏洙이 1865년 재편집 과정에서 산삭한 작품의

遺集』과 『丹陵遺稿』, 趙文命의 『鶴巖集』과 『鶴巖稿』를 대상으로 간본에 편입되지 못하고 산삭된 작품 일부와 간본으로 편찬된 작품을 비교하여 나름의 산삭 유형을 제시한 것이다.

- 35) 『규장각』 42집에 수록된 연구에서 김수진은 간본 문집 편찬 시 작품의 산삭 비율에 대하여 문집의 기록(『文谷集』, 『剛齋集』)과 자신의 연구 성과(『東谿集』, 『凌壺集』)를 인용하여, 문집 편찬 중 산삭된 작품 수가 어느 정도인지를 객관적 수치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다만 宋穉圭의 『剛齋集』에서 수습된 12책의 유고가 7책으로 줄어 간행되었다(=산삭율 41.6%)라고 말한 것은 약간의 무리가 있다. 이는 아들 송흥성이 부친의 유고를 간인하기 위해 편집 산삭한 결과물인 12책을 수습된 유고로 오인한 것이며, 이를 1865년 손자 송기수가 다시 재편집, 산삭하여 7책으로 줄여 간행한 것이기에 실제 산삭율은 41.6%보다 더 크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東谿集』과 『乾川藁』의 비교 결과 산삭율이 35%임을 밝힌 연구(김수진, “乾川藁 解題,” 『乾川藁』(규장각한국학연구원영인본, 2011)를 해당 논문에서 재인용하였으나 이는 간본 『東谿集』에 수록된 총 322편의 글 중 약 1/3 정도인 136편과 필사본 『乾川藁』에 대한 비교 결과이기에 산삭율 35%를 전체 문집에 적용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실제로 한 종의 문집이라고 하더라도 산삭율은 문체별로 차이가 발생하며, 또한 간본에 수록되지 않은 작품이 확인되는 필사본 이본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교정 원고인지 아니면 일부 작품을 필사한 책인지, 만약 교정 원고라면 편찬 초기 원고인지, 중기 혹은 후기 원고인지에 따라 책에 담겨진 작품 또한 차이가 많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東谿集』의 산삭율 35%는 본 연구에서 인용하지 않으며 또한 조구명의 전체 작품 대비 편찬 중 산삭된 작품의 비율을 확인할 방법이 없기에 본 연구에서는 『東谿集』을 비교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36) 金壽恒, 『文谷集』, 『文谷集跋』. “今於遺集之編, 詩刪者十之六, 文半之, 務從簡約, 以遵遺旨.”

- 37) 김수진, “능호관 이인상 문학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2.08) 중 ‘2) 뇌상관고(雷象觀藁)와 능호집(凌壺集)의 비교’.

- 38) 宋穉圭, 『剛齋集』, 『剛齋集 識』. “我先人掇拾斷爛之留存者, 撮刪哀輯, 編爲十二冊, 以家力不逮, 未及鏤梓, 而遽爾下世. 嗚呼痛哉! 不肖輩深懼先志未遂, 苦塊之中, 不住校讎. 歲乙丑, 始付剞劂, 而竊惟文稿之刊行也, 卷帙衰如, 則易或散落, 而妨於壽傳, 覽者亦患其支煩, 不如約之爲貴, 故就其中, 更加刪削, 詩疏以下各文, 或刪其強半, 或刪其三之二, 至於墓文, 行狀 亦略加存拔, 尾附若干附錄爲七冊, 凡七箇月而功訖. 以我綿力, 固難經紀, 而門下諸公, 曾有修稷於墓下者, 遂以此藉手, 而殫力拮据, 乃獲有成.”

분량이 대략 5책이었기에 이를 준용하여 아들 宋欽成 또한 5책 분량의 원고를 산삭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총 17책 분량의 작품 중 10책 분량(약 60%)의 원고가 간본에 수록되지 못한 채 산삭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 3건의 문집 편찬 사례를 통하여 전체 작품 대비 산삭된 작품의 비율은 金壽恒의 『文谷集』은 약 50~60%, 李麟祥의 『凌壺集』은 70%, 宋穉圭의 『剛齋集』은 60% 정도라고 할 수 있으며, 문집별 편차는 있지만 대략적으로 절반 이상의 작품이 편찬 과정에서 산삭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세 건의 사례가 조선 후기 문집 편찬 방법을 대표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들을 통하여 당시 편찬 중 유고가 산삭되는 비율이 어떠한지를 어렵게나마 경향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해당 결과를 매산집 시부류의 산삭율 77%와 서설류의 산삭율 81%와 비교해보면 매산집 편찬 과정에서 산삭된 작품의 비율이 좀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3 수신자

옛날 동서양의 정보 전달은 대부분 편지를 통하여 이뤄졌고, 편지를 통하여 자신의 공부, 문답, 자랑 등 모든 것이 진행되었다. 홍직필 역시 이러한 현상을 잘 보여주는 인물로 스승, 선배, 知舊, 제자, 親族, 승려 등 다양한 층위의 사람들과 6,188편 가량의 편지를 보내며 정보를 교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홍직필과 편지를 교류하였던 수신자들의 규모 및 시기별 수신자의 유형 변화 등을 알아보겠다.

간본 편지의 수신자는 총 410명이다. 단, 권21에 수록된 ‘答或人’ 4편과 같이 정확하게 수신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는 이들을 1명으로 계산하였다. 간본에서는 권5~22는 스승, 선배, 知舊 권23~25는 제자들, 권26은 院儒, 門中, 親族, 子姪 등으로 수신자를 구분하여 수록하였다.

국중본 편지의 수신자는 총 956명³⁹⁾으로 규모 면에서 간본 수신자보다 2.3배 더 많다. 이 중 간본과 공통으로 확인되는 수신자는 404명, 간본에서만 확인되는 수신자는 6명⁴⁰⁾이고 반대로 국중본에서만 확인되는 수신자는 552명이다. 홍직필의 문집 편찬 방식이 조선 후기에 간행된 여타의 문집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이 결과는 편찬의 결과물인 간본 문집에 수록된 글을 통하여 분석하는 저자의 사회적 인간관계는 실제와 비교하여 절반 정도의 관계만 파악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내포한다. 물론 모든 인간관계가 동등한 가치를 지녔다고 할 수 없으며 문집의 간행에는 많은 비용과 적은 지면이라는 경제적·물리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기에, 현존하는 문집은 간행 당시 여건과 한계 하에서 최대한의 정보를 담아낸 것이고 이러한 문집은 한 인물 연구를 위한 최고의 자료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저자가 아닌 편찬자의 주관으로 선별된 내용으로 구성된 간본

39) 956명은 수신자를 기재한 첫 부분이 뜯겨지거나 훼손된 편지를 제외한 수치이다.

40) 安壽祿(卷16 「答安汝必壽祿○辛酉菊月」), 愼必祐(卷20 「與愼子有必祐」), 金景會(卷20 「答金景會戊辰」), 金氏門中(卷26 「答金氏門中金燦祖問目」), 良洞李氏門中(卷26 「答良洞李氏門中戊申」), 松江院儒(卷26 「答松江院儒己酉」).

문집에는 앞에서 언급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조선을 포함 이전 시대의 인물 분석을 위해서는 이를 반드시 인지한 상태에서 간본 문집과 문집 편찬 원고를 함께 봐야 하며, 만약 남겨진 편찬 원고가 없을 경우 참고 가능한 모든 관련 자료를 분석해야만 정확한 인물 평가와 인물의 사회적 관계 파악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매산집과 같이 간본과 편찬 원고를 모은 필사본이 모두 남겨진 경우에는 간본과 필사본을 반드시 함께 참고해야함을 알 수 있다.

홍직필이 편지를 보낸 인물 중 간본과 국증본의 상위 50명의 수신자는 <표 10>⁴¹⁾과 같다.

<표 10> 간본·국증본 편지 수신자 상위 50명(중복 제외 기준)

연번	성명	간본 편수	총번	성명	간본 편수	연번	성명	국증본 편수	총번	성명	국증본 편수
1	李鳳秀	109편	26	林宗七	5편	1	李鳳秀	591편	26	李晉淵	34편
2	吳熙常	61편	27	姜鎭	4편	2	吳熙常	273편	27	白英輔	33편
3	任魯	42편	28	權達善	4편	3	任魯	206편	28	朴命璧	31편
4	金基敍	31편	29	金述鉉	4편	4	金[金+爨]	141편	29	金廣淵	30편
5	趙秉惠	27편	30	沈奎澤	4편	5	任憲晦	132편	30	沈猷永	30편
6	任翼常	23편	31	沈宜德	4편	6	金基敍	122편	31	洪大億	29편
7	任憲晦	20편	32	安養曾	4편	7	朴宗輿	121편	32	兪莘煥	28편
8	朴宗輿	17편	33	李勉在	4편	8	金炳圭	93편	33	李義秉	28편
9	韓運聖	15편	34	李源長	4편	9	任翼常	88편	34	趙中植	28편
10	白慶楷	14편	35	李正觀	4편	10	李載毅	79편	35	李寅龜	27편
11	李載毅	12편	36	李采	4편	11	李膺信	70편	36	金相喜	26편
12	洪一純	12편	37	林孝憲	4편	12	金泰根	60편	37	金周教	26편
13	朴雲壽	9편	38	田秉淳+著淳	4편	13	趙秉惠	57편	38	申命翼	26편
14	蘇輝冕	8편	39	或人	4편	14	李在慶	54편	39	吳致成	26편
15	李在慶	8편	40	金宗善	3편	15	趙鼎休	52편	40	崔濟默	26편
16	姜周欽	7편	41	金平默	3편	16	權達善	51편	41	金煥亨	25편
17	宋煥箕	6편	42	朴命璧	3편	17	宋五圭	50편	42	尹光演	25편
18	金泰根	6편	43	宋釋圭	3편	18	朴聲漢	47편	43	李漣	25편
19	朴宗塾	6편	44	申在植	3편	19	韓運聖	46편	44	尹鍾燮	24편
20	金[金+爨]	5편	45	兪莘煥	3편	20	林鶴鉉	43편	45	李度相	24편
21	朴宗喜	5편	46	李承憲	3편	21	崔象龍	42편	46	魚命能	23편
22	尹養善	5편	47	李承達	3편	22	李源長	39편	47	李庚周	23편
23	李義秉	5편	48	李直輔	3편	23	金聲大	37편	48	李潞	23편
24	李竣	5편	49	趙斗淳	3편	24	蘇輝冕	37편	49	姜鎭	22편
25	李晉淵	5편	50	洪顯周	3편	25	白慶楷	35편	50	鄭海尙	22편

41) 간본으로 편차된 편지가 3편인 수신자는 총 27명(金基厚·金炳圭·金寅根·金宗善·金周教·金平默·李庚周·李度相·李潞·李承達·李承憲·李寅龜·李直輔·朴命璧·宋釋圭·申在植·沈敦永·沈樂元·安永集·兪莘煥·尹光演·趙斗淳·趙明熙·趙中植·洪奭弼·洪一寧·洪顯周)이나 지면 관계상 11명만 선별하여 <표 10>에 수록하였다.

간본과 국중본의 편지 수신자 상위 50명이 모두 동일한 인물이 아니다. 양 본의 수신자 중 공통되는 인물은 <표 10>에서 색칠되어 있는 22명(姜鎭·權達善·金基敍·金[金+爨]·金泰根·朴命璧·朴宗興·白慶楷·蘇輝冕·吳熙常·俞莘煥·李鳳秀·李源長·李義秉·李在慶·李載毅·李晉淵·任魯·任翼常·任憲晦·趙乘惠·韓運聖)에 불과하다. 그리고 서로 겹치지 않는 수신자 56명 중 간본의 수신자 28명에게 보내는 편지는 모두 국중본에 수록되었지만 국중본의 수신자 28명에게 보낸 편지 중 5명(金煥亨·白英輔·魚命能·吳致成·林鶴鉉)⁴²⁾의 편지는 간본에 1편도 수록되지 않았다.

50명이라는 표본은 간본의 편지 수신자 410명 중 12.2%, 국중본 수신자 956명 중 5.2%에 불과하다. 하지만 간본 수신자 상위 50명의 편지는 553편으로 간본 편지 총 1,017편 중 54.4%에 해당하고, 국중본 수신자 상위 50명의 편지는 3,230편(중복 제외)으로 국중본 편지 총 6,188편(중복 제외) 중 52.2%에 해당한다. 비록 50명이라는 표본이 전체 수신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간본의 12.2%와 국중본의 5.2%에 지나지 않지만 그들에게 보냈던 편지는 양 본 편지의 절반가량에 해당할 정도로 상위 50명의 수신자가 홍직필의 교우 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 중 홍직필의 知舊인 李鳳秀(1778~1847), 선배인 吳熙常 및 任魯와 교유한 편지가 양 본 모두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李鳳秀는 홍직필과 비슷한 연배로 1803년부터 이봉수가 사망하던 1847년까지 연평균 13.1편의 편지를 주고받을 정도의 매우 깊은 교분을 나눴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선배인 任魯(국중본206편→간본42편)와 임로의 아들인 任翼常(국중본88편→간본23편), 스승 박윤원의 아들 朴宗興(국중본171편→간본17편)와 손자 朴雲壽(국중본18편→간본9편), 증손 朴齊近(국중본16편→간본2편)과 교유하면서 보냈던 상당수의 편지를 통하여 홍직필과 각 가문과의 교류가 장기간 지속되었으며 관계 또한 매우 친밀하였음을 보여준다.

상위 50명의 수신자 중 문집 편찬에 참여했던 홍직필 문하들을 주목할 만하다. 매산집의 편찬자이자 홍직필의 문인인 수신자를 국중본 내에서 편지를 많이 받은 순으로 배열하면 임헌회(132편)-조병덕(57편)-한운성(46편)-이원장(39편)-소휘면(37편)-전병순·시순 형제(5편) 순이었던 것이, 간본에서는 문하 내 학문적 명망과 입지에 따라 편지 수의 산삭이 이뤄지면서 조병덕(27편)-임헌회(20편)-한운성(15편)-소휘면(8편)-이원장(4편)-전병순·시순 형제(4편) 순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전병순·시순 형제의 경우 문집 편찬엔 참여한 공로가 상대적으로 인정받아 홍직필에게 받은 편지 5편 중 4편이 간본으로 편차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중본 내에서 편지 수로는 홍직필의 지구, 선배들에 비하여 순위가 아래였던 조병덕, 임헌회, 한운성과 같은 편찬자들이 간본에서는 수신자 상위 10명 안에 포함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오희상의 문인이면서 홍직필과 친교를 나눴던 朴命璧(1773~1827)과 俞莘煥(1801~1859)에게 홍

42) 金煥亨은 약관의 나이에 오희상의 문인이 된 인물로 1825~1848년까지 홍직필과 교유하였고, 魚命能은 김창협희의 문인인 魚有鳳의 현손이며, 吳致成(1785~1844)은 오희상의 장남으로 吳允常에게 출계한 인물이다. 白英輔와 林鶴鉉은 현재 확인되는 정보가 없다. 다만 林鶴鉉은 홍직필로부터 1831년8월21일 친인척으로 생각되는 林象鉉과 함께 편지를 받은 적이 있다. 林象鉉의 경우, 각사등록 忠淸兵營啓錄 哲宗 2년(1851) 6월 10일 기사에 公州鎭右營將 林象鉉이라는 기록이 확인되는데 임학현의 친인척으로 보이는 인물과 동일인으로 추정된다.

직필이 보낸 편지가 국중본에는 각 31편, 28편이 수록되었는데 간본에는 그중 각 3편씩만 선별된 것과 비교해보면, 문집 편찬자들의 편지는 다른 수신자들의 편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되어 간본에 수록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홍직필의 생애에 따라 홍직필과 편지를 주고받은 수신자의 신분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알아보겠다. 이를 위하여 홍직필의 생애를 처음 편지를 보낸 1792년(17세)부터 1805년(30세), 1806년(31세)부터 1815년(40세), 1816년(41세)부터 1825년(50세), 1826년(51세)부터 1835년(60세), 1836년(61세)부터 1845년(70세), 1846년(71세)부터 1852년(77세), 이상 6단계로 나눈 다음 시기별 수신자의 변화를 분석하도록 하겠다. 단, 보낸 시기를 알 수 없는 편지 간본 11편과 국중본 133편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우선 1792년~1825년까지 간본과 국중본에서 파악되는 편지 수신자에 대한 분석을 <표 11>과 함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792년~1805년까지 홍직필은 박윤원과 사제관계를 맺은 후 아버지의 권유로 과거에 사마시에 응시하여 초시에는 합격하나 회시에 실패하면서 경전 공부에만 몰두하기로 결심한 시기였다. 이때 홍직필은 67명에게 334편의 편지를 보냈고 그 중 간본에는 33명에게 보낸 75편의 편지가 실렸는데, 홍직필이 연평균 99.9편(국중본 기준)의 편지를 보냈던 것과 비교하면 적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홍직필이 막 사람들과 교류를 시작한데다 과거 준비와 실패를 겪은 것에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홍직필이 편지를 보낸 인물은 宋煥箕·李直輔·徐簡修·尹聚東과 같은 선배 혹은 李鳳秀·李載毅·白慶楷와 같은 知舊가 대부분이었다.

1806년~1815년은 30대의 홍직필이 학문에 전념하기 시작하던 시기로 이전과 마찬가지로 수신자 대부분은 선배와 知舊이며, 145명에게 829편의 편지를 보냈고 그 중 간본에 64명에게 보낸 편지 145편이 실렸다. 이 시기에는 국중본 기준으로 연평균 82.9편의 편지를 보냈으며 이를 1792~1805년 동안 연평균 23.9편과 비교하면 약 3.4배가 늘어났다고 할 수 있다. 즉, 1792~1805년보다는 시간 상 4년이 적지만 보낸 편지와 수신자의 수가 증가한 이유는 홍직필이 본격적으로 학문에 전념하면서 학술적으로 활발히 주변인들과 교류하기 시작한 것이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시기에 보낸 총 829편의 편지 중 승려 2명에게 보내는 편지 2편이 확인된다. 1편은 국중본 제70책에 수록된 승려 聖岸에게 보낸 편지로 스승 박윤원의 글을 읽고 참된 진리를 깨달으라며 회유하는 「答聖岸上人 癸酉十月二十日」이고, 또 다른 1편은 간본 卷26, 국중본 제88·106책(중복)에 수록된 편지로 승려 이자 명필로 이름났던 戒悟(1773~1849)에게 儒家로 전향하라고 권유하는 「答戒悟上人 甲戌」이다. 이후 홍직필이 사망하기까지 해당 승려에게 추가로 편지를 보내거나 다른 승려와 교류한 흔적은 전혀 확인되지 않기에, 戒悟와 聖岸과의 교류는 30대 중후반 홍직필이 본격적으로 인적 교류를 넓히기 시작하면서 우연히 엮히게 된 인연으로 보인다.

홍직필이 40대인 1816년~1825년은 홍직필과 오희상과의 교류가 본격화되던 시기이다. 이 때 홍직필은 158명에게 956편의 편지를 보냈으며 간본으로 편차된 것은 64명에게 보낸 207편이었고 그 중 홍직필에게 가장 많은 편지를 받았던 인물은 오희상이다. 또한 1809년 장남 洪一漢이 사망한

후 후사가 없던 홍직필이 1818년 族弟 洪禹弼의 아들인 洪一純을 양자로 삼은 뒤 그에게 보낸 편지로 대부분 공부 방법이나 학우들과의 교류 및 언행에 대한 조언, 강학을 권면하는 내용이며 간본과 국중본 모두에서 확인된다.

<표 11> 1792~1825년 간본·국중본 편지 수신자 상위 20명 (중복 제외 기준, 시기 미상 제외)

연번	1792년(17세)~1805년(30세)		1806년(31세)~1815년(40세)		1816년(41세)~1825년(50세)							
	간본	국중본	간본	국중본	간본	국중본						
1	李鳳秀 11편	李鳳秀 54편	李鳳秀 26편	李鳳秀 97편	吳熙常 43편	吳熙常 157편						
2	任魯 11편	任魯 50편	金基敍 15편	朴宗興 72편	李鳳秀 39편	任魯 81편						
3	朴宗興 8편	朴宗興 47편	朴宗興 9편	任魯 52편	任魯 20편	李鳳秀 76편						
4	宋煥箕 6편	宋五圭 16편	任魯 8편	金基敍 47편	金基敍 11편	金基敍 55편						
5	李直輔 3편	尹光演 14편	李載毅 7편	金泰根 39편	朴雲壽 8편	李載毅 30편						
6	金基敍 2편	李載毅 12편	金泰根 4편	朴聲漢 33편	洪一純 5편	任翼常 23편						
7	徐簡修 2편	宋煥箕 11편	李義秉 4편	李載毅 32편	安養曾 3편	朴命璧 22편						
8	尹光演 2편	白英輔 11편	金[金+爨] 3편	李義秉 25편	李載毅 3편	沈猷永 18편						
9	尹聚東 2편	禹載岳 7편	李潞 3편	金[金+爨] 23편	林孝憲 3편	李度相 18편						
10	李驥秀 2편	李直輔 6편	李采 3편	宋五圭 23편	洪奭弼 3편	金[金+爨] 15편						
11	李承達 2편	金宗善 5편	任翼常 3편	李潞 19편	洪一寧 3편	白慶楷 14편						
12	李宜朝 2편	李晉淵 5편	姜周欽 2편	李承達 16편	姜周欽 2편	金炳圭 14편						
13	李載毅 2편	徐簡修 4편	金基厚 2편	任翼常 15편	金炳圭 2편	朴雲壽 13편						
14	姜周欽 1편	尹聚東 4편	金宗善 2편	白英輔 14편	金益哲 2편	金泰根 13편						
15	金相進 1편	李承達 4편	朴攸行 2편	兪常柱 12편	朴命璧 2편	閔述鏞 12편						
16	金宗善 1편	沈能岳 3편	兪常柱 2편	金基有 9편	白慶楷 2편	朴聲漢 11편						
17	朴泳 1편	李驥秀 3편	李承祖 2편	宋欽大 8편	宋禪圭 2편	宋五圭 11편						
18	朴雲壽 1편	李義秉 3편	李窩 2편	禹載岳 8편	安泰重 2편	洪一純 9편						
19	朴胤源 1편	白慶楷 3편	戒悟 1편	尹約烈 8편	李度相 2편	洪善義 9편						
20	白慶楷 1편	姜鑣 3편	孔允錫 1편	李采 8편	李升淵 2편	洪奭弼 8편						
	상위20명 소계	62편	소계	265편	소계	101편	소계	560편	소계	159편	소계	609편
	1792~1805년 총계	75편	총계	334편	1806~15년 총계	145편	총계	829편	1816~25년 총계	207편	총계	956편

다음으로 1826년~1852년까지 간본과 국중본에서 파악되는 편지 수신자에 대한 분석을 <표 12>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다. 1826년~1835년은 50대의 홍직필이 오희상과 함께 서울 지역의 노론 학계를 이끌면서 둘 아래로 문인들이 결집하기 시작하던 시기로, 홍직필은 216명에게 1,231편의 편지를 보냈으며 간본에는 97명에게 보낸 222편이 실려 있다. 이를 1816~1825년과 비교하면 국중본 기준으로 수신자는 58명(158명→216명)이 증가하였으며 편지는 연평균 27.5편(95.6편→123.1편)이 늘어났다. 10년이라는 동일한 기간 동안 수신자와 편지 양이 기존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는 것은 관계의 범위가 크게 넓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는 낙론계 내에서 홍직필의 학문적 명망과 영향력이 증가하였고 그의 밑에서 수학하려는 문인 역시 늘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12> 1826~1852년 간본·국중본 편지 수신자 상위 20명 (중복 제외 기준, 시기 미상 제외)

연번	1826년(51세)~1835년(60세)		1836년(61세)~1845년(70세)		1846년(71세)~1852년(77세)	
	간본	국중본	간본	국중본	간본	국중본
1	李鳳秀 33편	李鳳秀 163편	任憲晦 14편	李鳳秀 182편	任憲晦 6편	任憲晦 65편
2	吳熙常 18편	吳熙常 116편	任翼常 10편	任憲晦 67편	韓運聖 6편	李源長 37편
3	趙秉惠 14편	李在慶 54편	趙秉惠 9편	金[金+爰] 61편	李竣 4편	趙秉惠 22편
4	白慶楷 11편	權達善 48편	姜籟 4편	金炳圭 31편	田秉淳+蒼淳 4편	李寅龜 21편
5	任翼常 9편	李膺信 37편	蘇輝冕 4편	金廣淵 26편	趙秉惠 4편	金相喜 19편
6	李在慶 8편	金[金+爰] 36편	沈奎澤 4편	李膺信 25편	金平默 3편	韓運聖 16편
7	尹養善 5편	金炳圭 34편	韓運聖 4편	申命翼 23편	蘇輝冕 3편	朴齊近 16편
8	權達善 4편	任翼常 28편	金寅根 3편	任翼常 22편	沈敦永 3편	李鳳秀 16편
9	朴宗喜 4편	任魯 23편	朴宗塾 3편	蘇輝冕 21편	權翌 2편	尹禮綱 16편
10	李晉淵 4편	林鶴鉉 23편	沈宜德 3편	崔濟默 20편	金正洙 2편	趙鼎休 14편
11	洪一純 4편	趙秉惠 20편	林宗七 3편	崔象龍 20편	閔泳穆 2편	金炳圭 14편
12	金基敍 3편	趙中植 20편	金廣淵 2편	韓運聖 18편	閔泳和 2편	蘇輝冕 13편
13	金述鉉 3편	尹養善 16편	金博淵 2편	李庚周 17편	閔青顯 2편	李正觀 13편
14	朴宗塾 3편	金基敍 15편	沈能容 2편	魚命能 15편	朴齊近 2편	李濂 13편
15	沈樂元 3편	趙鼎休 15편	安永集 2편	俞莘煥 15편	徐贊奎 2편	俞莘煥 13편
16	任魯 3편	白慶楷 14편	吳致箕 2편	趙秉惠 15편	沈宜健 2편	李教峻 13편
17	趙中植 3편	金述鉉 14편	俞莘煥 2편	趙鼎休 15편	尹錫僖 2편	洪大億 13편
18	姜周欽 2편	金周教 14편	李義俊 2편	洪大億 15편	李道用 2편	姜進奎 12편
19	金周教 2편	李龍秀 14편	趙斗淳 2편	蘇洙渠 13편	李勉愚+李大愚 2편	金基憲 12편
20	金直信 2편	金煥亨 13편	趙明熙 2편	尹鍾燮 13편	李源長 2편	金升奎 12편
	상위20명 소계 138편	소계 717편	소계 79편	소계 634편	소계 57편	소계 370편
	1826~35년 총계 222편	총계 1,231편	1836~45년 총계 161편	총계 1,236편	1846~52년 총계 196편	총계 1,469편

기존 수신자들이 대부분 선배나 지구로 구성되었던 것과 비교하여 이 시기에는 趙秉惠, 沈樂元 등의 문인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을 볼 수 있다. 趙秉惠(국중본20편→간본14편), 沈樂元(국중본5편→간본3편)에게 보낸 편지 중 60% 이상이 간본에 실린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이봉수(국중본163편→간본33편), 오희상(국중본116편→간본18편), 이재경(국중본54편→간본8편), 임로(국중본23편→간본3편)와 같은 선배, 지구의 편지가 편찬 과정에서 대부분 산삭되고 15% 남짓한 양만 간본으로 편찬된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비율이다. 이 기간 조병덕과 심낙원이 받은 편지는 공부의 단계를 건너뛰는 것을 경계하는 자세, 공부에 대한 조언, 神主를 改題하는 시점, 喪禮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 등 제자에게 보내는 일반적인 편지들로 특이한 내용은 아니며, 이봉수 등 선배, 지구의 산삭된 편지 85%가 모두 사적이고 내밀한 내용으로만 구성된 것 역시 아니다. 조병덕, 심낙원의 편지가 간본으로 편찬된 비율이 높은 원인은 제한된 지면에 배치할 작품의 선정 과정에서 대부분 홍직필의 문인으로 구성된 문집 편찬자들이 완전한 공정성을 가지고 선별에 임한 것이 아니라는 추정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홍직필이 60대였던 1836년~1845년에 그는 기호 낙론의 학문적 입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전국에서 홍직필 문하로 많은 문인들이 모였다. 이 시기 홍직필은 대체로 문인, 후배 등 281명에게 1,236편의 편지를 보냈으며 간본에는 98명에게 보낸 161편이 수록되었다. 이를 1826~1835년에 보낸 편지와 비교하면 수신자는 65명(216명→281명)이 증가하였으나 연평균 편지 수 123.6편으로 비슷한 수치를 보여준다. 편지 수는 비슷하나 수신자는 23.1%가 증가한 것은 홍직필의 교우 관계가 획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함경도의 학자 屯塢 林宗七(1757~1859)에게 보낸 3편의 답신을 통해서 잘 드러난다. 임종철은 김창협 형제로부터 낙학을 전수받은 함경도의 선비 李載亨의 학통을 계승한 문인이자 北關四賢의 마지막 유현으로 함경도 성리학의 마지막을 마무리하였다고 평가받는다. 홍직필이 임종철에게 보낸 답신은 총 14편이며 그 중 1837~1848년간 보낸 5편이 간본에 수록되어 있다. 내용은 송대 이후 중국 성리학의 변천과 고려 정몽주 이후 우리나라 성리학의 변천, 학문의 요체, 喪祭禮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 등이다. 홍직필은 서울의 화려한 벌얼 가문으로 한창 명망이 드높을 때도 변두리 함경도 북관 지방 유학의 질문을 무시하지 않고 상세히 답하며 학적 교류를 이어갔으며 이러한 면모를 통하여 홍직필이 지역과 인물의 편차를 두지 않고 최대한의 성실함을 담아 교류를 하려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기 편지 중 조병덕의 장남이자 임익상의 사위인 趙明熙와 교류한 편지⁴³⁾나 노론 4대신 趙泰采의 5대손이자 후에 흥선대원군과 조대비의 절대적 신임을 얻었던 心菴 趙斗淳(1796~1870)과 교류한 편지⁴⁴⁾를 통하여 홍직필의 인간관계가 상당히 넓었으며, 정치적인 인물과의 교류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836~1845년 편지 수신자 상위 20명을 살펴보면 홍직필의 문집을 편찬하는데 중심 역할을 했던 임헌희, 조병덕, 한운성, 소휘면이 간본과 국중본에서 모두 확인된다. 국중본에 수록된 4명의 편지는 임헌희를 제외하면 국중본에서는 홍직필의 후배, 문인 등 다른 수신자에 비하여 편지 수가 상대적으로 뒤쳐진다고 할 수 있으나 간본에서는 4명 모두 수신자 상위 5명에 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현상은 홍직필의 문인으로 구성된 편찬자들이 편찬 과정에서 일부 편파적인 작품 선별을 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1846년~1852년은 홍직필이 77세의 나이로 사망하기 전까지 시기로, 주변인들과 편지를 교류한 기간은 비록 7년에 불과하나 이 때 홍직필이 보낸 편지와 그 수신자들은 홍직필 생애에서 가장 많았다. 마지막 7년간 홍직필 편지의 수신자는 임헌희를 위시로 田秉淳·蒼淳형제, 閔胄顯, 金正洙, 徐贊奎, 李源長 등 홍직필의 문인 들이 대부분인 것을 알 수 있다. 홍직필은 총 503명에게 1,469편의 편지를 보냈으며 간본에는 153명에게 보낸 196편이 수록되었다. 60대(1836~1845년)에 보낸 편지와 비교하면 수신자는 222명(281명→503명), 연평균 편지 수는 86.3편(123.6편→209.9편)이 증가하였다. 말년

43) 국중본 22책 「答趙晦父明熙○甲辰立秋日」, 48책 「答趙晦夫明熙○壬寅菊月少念」, 102책 「答趙晦父明熙○壬寅四月望」; 간본 卷19 「答趙晦夫明熙○壬寅」, 「答趙晦夫甲辰」.

44) 국중본 23책, 92책(중복) 「答趙元七 己亥四月三日」, 「答趙元七 癸卯十月十一日」; 간본 卷14 「與趙元七斗淳○己亥四月」, 「答趙元七癸卯十月」.

에 홍직필은 학파를 가리지 않고 많은 후기 성리학자들과 교류하면서 당시 유럽의 중심인물로서 유럽 전체의 화합에 주목하고 실천하고자 노력하였고⁴⁵⁾ 이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가 바로 이 수신자 수와 연평균 편지 수인 것이다.

이상 홍직필의 생애를 6단계로 구분하여 각 시기별 수신자의 변화를 정리하면 10대부터 30대까지 대부분의 수신자는 선배, 지구로 구성되었으나 30대의 수신자와 연평균 편지 수는 20대까지의 수신자 및 연평균 편지수와 비교하여 3.4배 증가하였으며 이는 홍직필이 활발히 주변인들과 교류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40대에는 오희상과의 교류가 본격화되면서 그와 교류한 편지가 가장 많이 수록되었으며, 계속하여 오희상과 서울 지역 노론 학계를 이끌면서 문인들이 결집하기 시작하던 50대에는 홍직필의 수신자 중 조병덕, 심낙원 등 문인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였으며 수신자는 216명, 연평균 123.1편으로 교류의 범위가 점차 넓혀지기 시작하였다. 60대에는 홍직필 문하로 상당수의 문인이 모이게 되면서 지구 혹은 선배가 대부분이었던 수신자의 구성층 중 문인의 비율이 대폭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말년인 70대에는 홍직필 생애 가장 많은 편지(연평균 209.9편)를 503명의 수신자에게 보냈으며 대부분의 수신자는 문인으로 변화하였다.

4. 序跋類의 구성 및 특징

序跋類는 책의 처음과 끝에 수록된 산문이다. 序는 『詩經』의 전체 내용을 개괄한 「大序」에서 기원하며, 서적이거나 문장의 내용을 소개하거나, 작가의 일생·사적을 소개하고 저작의 동기·경위를 설명하거나 저작의 내용·체제를 밝히고 평가하는 글을 모두 序라 불렀다. 序는 시문집은 물론 古書籍·方志·政書·奏議·族譜·年譜·年表·唱和詩卷에도 작성하였는데 대체로 卷首에 두었지만 간혹 卷末에 놓이면서 後序라 불리게 되었다. 이 後序는 당나라 이전에 등장하였으며 송나라 때 비로소 跋이 출현하게 되었다. 跋은 題後·題跋이라고도 불리며 序보다 간결하고 억센을 위주로 한다. 우리나라는 고려 중엽 이후에는 서발문이 발달하기 시작하여 사람과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조선 중종 이후 글에 한걸 철학성을 띠게 되었으며, 17세기 문집 간행이 활발해짐에 따라 서발문의 제작도 함께 많아지게 되었다.⁴⁶⁾

간본 『梅山集』의 序跋類로는 실마리를 차례대로 풀어내는 역할을 하는 序와 함께 序와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책 마지막에 수록되는 題跋 2종이 실려 있다. 간본 권27, 29~30에 수록된 서발류는 총 45편이며 그 중 서문은 권27에 21편, 제발은 권29~30에 24편이 수록되었다. 편찬 원고의 모음인 국중본 제148, 151~159, 164~166, 212책에 수록된 서발류는 중복 포함 총 395편(서문 246편, 제발 149편), 중복 제외 238편(서문 135편, 제발 103편)이 수록되었다.

45) 박학래, “梅山 洪直弼의 性理說 연구,” 『국학연구』 26(한국국학진흥원, 2015. 4), 229-266.

46) 심경호, 『한문 산문의 미학』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2013), 476-510.

4.1 序

간본과 국중본 문집에 수록된 서문의 작품 수를 <표 13>과 함께 확인하면, 간본 卷27에는 홍직필이 23세 되던 1799년부터 사망하는 1852년까지 작성된 서문 21편이 수록되었다. 편찬 원고의 모음인 국중본 제148, 151~159, 212册에는 홍직필이 1792년부터 1852년까지 작성된 서문이 총 245편, 중복 제외 시 134편이 분산 수록되었다. 양 본의 작품 수만을 비교하면 간본으로 편차된 서문은 홍직필이 작성한 것 중 15.6%뿐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간본 서문 중 『懷齋集序』 1편이 국중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즉 국중본에 누락된 홍직필의 서문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서문 대비 간본으로 편차된 글의 비중은 더 낮아질 것이다.

<표 13> 간본·국중본에 수록된 연도별 序文 편수

연번	서기	연령	간본	국중본		연번	서기	연령	간본	국중본	
				중복 제외	중복포함					중복 제외	중복포함
1	1792년	17	-	1편	1편	22	1834년	59	2편	5편	13편
2	1798년	23	-	4편	9편	23	1835년	60	1편	3편	9편
3	1799년	24	1편	3편	6편	24	1836년	61	1편	4편	8편
4	1801년	26	1편	5편	11편	25	1837년	62	1편	2편	3편
5	1802년	27	-	-	-	26	1838년	63	1편	1편	2편
6	1803년	28	1편	1편	3편	27	1839년	64	-	2편	4편
7	1809년	34	-	1편	3편	28	1840년	65	-	2편	3편
8	1810년	35	-	1편	2편	29	1841년	66	2편	4편	8편
9	1811년	36	-	1편	2편	30	1842년	67	-	-	-
10	1816년	41	1편	2편	4편	31	1843년	68	-	1편	2편
11	1817년	42	-	-	-	32	1844년	69	-	9편	17편
12	1818년	43	1편	1편	3편	33	1845년	70	1편	8편	13편
13	1823년	48	-	2편	5편	34	1846년	71	-	3편	3편
14	1824년	49	-	3편	9편	35	1847년	72	1편	4편	5편
15	1825년	50	-	-	-	36	1848년	73	-	2편	2편
16	1826년	51	-	5편	11편	37	1849년	74	-	3편	3편
17	1829년	54	-	1편	2편	38	1850년	75	-	1편	1편
18	1830년	55	-	1편	2편	39	1851년	76	1편	5편	6편
19	1831년	56	-	-	-	40	1852년	77	1편	2편	6편
20	1832년	57	-	2편	5편	41	미상		4편	40편	60편
21	1833년	58	-	-	-		총		21편	134편	245편

서문의 중복율을 살펴보면, 국중본의 서문은 총 245편, 중복 제외 시 134편, 순 중복 편수는 111편(중복율 45.1%)이다. 이 중에서 국중본에 실린 서문 중 간본으로 편차된 것은 중복 포함 47편, 중복 제외 20편, 순 중복 편수는 27편(중복율 57.4%)이며, 국중본에서만 볼 수 있는 서문은 중복 포함

198편, 중복 제외 114편, 순 중복 편수는 84편(중복율 42.2%)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앞서 시부류, 서설류에서 알아본 중복율과 마찬가지로 간본으로 편찬된 작품의 중복율(57.4%)이 그렇지 않은 경우(42.2%)보다 더 높기에 편찬자들이 간본에 편찬할 서문에 대해서 시간을 들여서 교정을 하였다 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 서문의 중복된 편찬 원고들을 살펴보면 <그림 2>와 같이 대부분 본문에 특별한 교정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설사 교정을 하더라도 필사 과정 중 누락된 문장이나 성명의 오류 정정과 같은 류의 교정이 일부 작품에서만 확인된다. 이는 시부류, 서설류 원고에서 朱墨, 靑墨을 번갈아 사용하며 교정 사항을 지시하고 본문을 도삭하였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서발류, 비지류와 같은 글을 요청하는 체제와 관련이 있는 것을 보인다. 조선 시대 서발류가 만들어지게 되는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책의 편저자가 완성된 서책의 원고를 들고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학식 있는 인물에게 찾아가서 간곡히 글을 요청하고, 상대가 이를 허락하여 글을 지어주면 요청자는 글을 보관하였다가 서책을 간행할 때 신게 된다. 이러한 글의 생산 방식은 서발류뿐만 아니라 비지류, 전장류, 애제류 등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p>清德祠誌序丙申八月</p> <p>清德祠者即鎮安大君章懿公諱芳雨之廟而朝家取伯夷之清與太伯之德而錫號者也公以太祖曾子仕麗朝為大保伯及成康威化之後公察其高化家為國之幾聖家入鐵原山中壬申太祖既先膺寶錄公避于咸州之政里凡祖不欲枉其志賜一區田宅俾終老焉嗚呼處家嗣之尊當垂統之始望望然去無與家國事者何哉公心知定宗太宗咸有聖德又其人耶如惟宗之王李文王遂為恭伯之逃人祗知公無愧三讓之至德而不知其業世</p> <p>제151책 『清德祠誌序 丙申』</p>	<p>清德祠誌序丙申八月</p> <p>清德祠者即鎮安大君章懿公諱芳雨之廟而朝家取伯夷之清與太伯之德而錫號者也公以太祖曾子仕麗朝為大保伯及成康威化之後公察其高化家為國之幾聖家入鐵原山中壬申太祖既先膺寶錄公避于咸州之政里凡祖不欲枉其志賜一區田宅俾終老焉嗚呼處家嗣之尊當垂統之始望望然去無與家國事者何哉公心知定宗太宗咸有聖德又其人耶如惟宗之王李文王遂為恭伯之逃人祗知公無愧三讓之至德而不知其業世</p> <p>제154책 『清德祠誌序 丙申』</p>	<p>清德祠誌序丙申八月</p> <p>清德祠者即鎮安大君章懿公諱芳雨之廟而朝家取伯夷之清與太伯之德而錫號者也公以太祖曾子仕麗朝為大保伯及成康威化之後公察其高化家為國之幾聖家入鐵原山中壬申太祖既先膺寶錄公避于咸州之政里凡祖不欲枉其志賜一區田宅俾終老焉嗚呼處家嗣之尊當垂統之始望望然去無與家國事者何哉公心知定宗太宗咸有聖德又其人耶如惟宗之王李文王遂為恭伯之逃人祗知公無愧三讓之至德而不知其業世</p> <p>제157책 『清德祠誌序 丙申』</p>	<p>卷27</p> <p>清德祠誌序丙申</p> <p>光澤寶錄公避于咸州之故里太祖不欲枉其志賜一區田宅俾終老焉嗚呼處家嗣之尊當垂統之始望望然去無與家國事者何哉公心知定宗太宗咸有聖德又其人耶如惟宗之王李文王遂為恭伯之逃人祗知公無愧三讓之至德而不知其業世長在於華朝之前躬身自蹈於革除之後者無逸二</p> <p>『清德祠誌序 丙申』</p>
-------------------------------------------------------------------------------------------------------------------------------------------------------------------------------------------------------------------------------------	-------------------------------------------------------------------------------------------------------------------------------------------------------------------------------------------------------------------------------------	-------------------------------------------------------------------------------------------------------------------------------------------------------------------------------------------------------------------------------------	---------------------------------------------------------------------------------------------------------------------------------------------------------------------------

<그림 2> 국증본 제151, 154, 157책, 간본 卷27에 수록된 『清德祠誌序 丙申』

19세기 중반 洛學의 宗匠이었던 홍직필에게도 당연히 글을 부탁하는 요청이 쇄도하였고 국증본에 남겨진 작품 수를 통하여 확인되듯이 홍직필 또한 이에 응하여 상당량의 글을 지어주었다. 이후 홍직필이 사망하고 그의 문인들에 의하여 문집이 편간되면서 홍직필이 다른 사람에게 지어준 서발문, 비지류, 전장류 등을 편집하는데, 해당 문체의 글은 다른 사람의 서책에 수록되어 이미 세간에 널리 알려졌거나 알려지게 될 경우가 대부분이다. 편찬자들에게 있어 홍직필은 존경하는 스승이고, 또한 세간에 알려진 스승이 지은 서발문, 묘문 등에 시부류나 편지와 같은 수준의 침삭 혹은 축약, 삭제와 같은 교정을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서발류, 비지류, 전장류와 같은 글에는 시부류, 서설류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교정이 적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지면의 제한이나 너무 내밀한 사적인 내용 때문에 작품 자체를 산절하는 경우는 많겠지만, 시부류나 서설류처럼 본문을 도삭하거나, 청목과 주목을 번갈아 사용하면서 몇 차례에 걸쳐 교정하지 않은 까닭은 위와 같은 배경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홍직필의 생애별 서문이 작성된 경향성을 알아보겠다. 앞서 시부류, 주의류, 서설류와 달리 간본과 국중본의 서문에는 작성 시기를 알 수 없는 작품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기에, 생애별로 서문이 작성된 추이와 경향성을 대략적으로라도 알아보기 위하여 작성 시기 미상의 서문을 모두 제외하면 간본은 17편, 국중본은 93편이 분석 대상이 된다.

간본에는 30대에 작성한 서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를 제외하면 20대와 40~70대까지 큰 편차 없이 3편 남짓 정도의 서문을 작성한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국중본에서는 30대에 작성된 서문 3편이 확인되며 전체 서문 중 74%(69편)가 50대 이후에 작성된 것을 알 수 있다.⁴⁷⁾

홍직필은 10~20대에는 17세 되던 1792년에 외조모 정씨의 62세 생신을 축하하는 수서 1편을 포함하여 壽序 3편, 送序 9편, 贈序 2편을 지었으며, 30대에는 送序, 壽序, 書序가 각 1편, 40대에는 送序 4편, 壽序 2편, 書序 2편(문집서 1편, 기타 1편), 50대에는 送序 6편, 壽序 1편, 贈序 2편, 書序 7편(문집서 5편, 기타 2편), 後序 1편을 지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홍직필이 작성한 서문의 종류를 보면 젊은 시절에는 送序, 壽序 위주로 작성하였고 점차 나이가 들면서 학문적 명성이 높아짐에 따라 書序가 많아지는 것이 확인된다. 말년인 60대에는 書序 29편(문집서 15편, 족보서 7편, 기타 7편), 送序 1편, 後序 2편, 70대에는 書序 16편(문집서 4편, 족보서 6편, 기타 6편), 送序 1편, 壽序 2편을 작성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말년에 홍직필이 작성한 대부분의 서문은 書序였으며 그 중 문집서와 족보서의 비중이 압도적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書序는 『南陽洪氏族譜』, 『唐城洪氏世譜』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다른 사람이 책을 가져와 홍직필에게 서문을 부탁하면서 작성하게 된 것이기에, 書序의 작성 비중이 커졌다는 것은 洛學의 종장이자 遺逸로써의 홍직필의 학문적 명성이 점차 높아졌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록 이는 정확한 작성 시기를 알 수 없는 서문을 제외한 결과이기는 하나 홍직필의 생애별로 서문이 작성된 경향과 추이를 대략적으로 파악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이며, 또한 이를 홍직필이 생존하던 18~19세기 당대 지식인들이 서문을 작성하던 경향, 추이에 빗대어 봐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다음으로 간본과 국중본의 서문을 送序, 贈序, 壽序, 書序, 後序로 구분하여,⁴⁸⁾ 양 본의 구성 및 내용을 비교하겠다. 送序는 지인과 이별할 때에 석별의 감정을 쓴 서문이다. 간본에는 친구 朴命璧이 과거에 합격하고 고향으로 내려 갈 때 쓴 『送朴季立榮歸序 癸亥』를 포함하여 洪奭弼, 李麟秀, 姜周欽

47) 시기별 서문(간본-국중본): 20代 3편-14편, 30代 0편-3편, 40代 2편-8편, 50代 3편-17편, 60代 6편-32편, 70代 3편-19편.

48) 단, 국중본 서문 135편(중복 제외) 중 152책의 서문 1편은 제목과 본문 일부가 누락된 상태로 실려 있기에 送序, 贈序, 壽序, 書序, 後序의 구분 및 간본과의 비교에서 제외하였다.

등 4명에게 보내는 송서 4편이 수록되었다. 국중본에는 간본의 송서 4편을 포함 24편의 송서가 수록되었다. 국중본에만 수록된 송서 20편은 19명에게 보낸 것이고 그 중 湖南二士와 吳璪林을 제외한 16명⁴⁹⁾은 모두 홍직필과 편지를 나눴던 인물이다. 그리고 20편 중 朴命璧에게 보내는 송서 3편이 확인되면서 知舊로 알려진 홍직필과의 관계를 다시 알 수 있으며, 처남 李承達(1780~1827)과 교유가 있던 金箕禮에게도 각각 2편의 송서를 보낸 것을 볼 수 있다.

贈序는 자신의 의견이나 교훈을 함축하여 작성한 서문이다. 간본에는 홍직필에게서 공부하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소회편에게 작은 성취에 안주하지 않는다면 원대한 학문을 이룰 수 있다고 조언하는 「贈蘇純汝輝冕歸濟陽序 甲午」 1편이 수록되었다. 국중본에는 간본으로 편차된 贈序 1편을 포함 4편이 수록되었고, 간본에 편차되지 않은 3편의 증서는 각각 安壽祿, 安壽麟, 朴歸永에게 보낸 것이다. 그 중 홍직필의 문인인 安壽祿, 安壽麟에게 보낸 홍직필의 편지가 간본과 국중본에 함께 수록된 것을 볼 수 있다.

壽序는 개인의 장수를 축원하기 위하여 지어진 서문이다. 간본에는 외조모 海州 鄭氏의 71세 생신을 축하하며 쓴 「外王母七十一歲壽序」, 임헌회의 모친 남양 홍씨의 생신을 축하하는 「任明老慈夫人洪氏七十歲壽序 壬子」 총 2편이 수록되었다. 국중본에는 간본으로 편차된 壽序 2편을 포함 10편이 수록되었으며, 국중본에만 수록된 8편은 오희상, 임로 등 7명을 위하여 작성한 것이며 7명의 인물 중 홍직필과 편지를 교유한 인물은 오희상, 임로, 이봉수 3명이 확인된다. 그리고 외조모가 62세, 80세 때 이를 축하하며 홍직필이 작성한 수서 2편이 국중본에서 추가 확인되었는데, 외조모를 위해 지은 수서만 총 3편인 점을 통하여 두 사람의 관계가 상당히 돈독하였음을 알 수 있다.

書序는 자신이나 타인이 저술한 책의 내용, 저작 동기 등을 간략히 저술한 서문이다. 간본에는 고려 말 문신이며 간재 전우의 조상인 田祿生 삼형제의 문집 『三隱合稿』의 서문 「三隱合稿序」를 포함 문집서 5편, 『權忠壯公實記』⁵⁰⁾ 등 實記를 위한 서 3편, 일반 책을 위한 서 4편, 총 13편이 실려 있다. <표 14>에서 알 수 있듯이 국중본에는 92편의 書序가 수록되었으며 그 중 간본의 「懷齋集序」 1편을 제외한 12편의 편찬 원고가 확인된다. 국중본 書序 92편은 『歷代人物通攷』, 『源百錄』⁵¹⁾ 『人事尋緒目』과 같은 일반 책 19종에 대한 서문 19편, 『鄭忠壯公實記』, 『正統祠重建記』 등 實記

49) 金箕禮, 金鳳鎮, 金用基, 金宗善, 朴命璧, 朴鼎祿+吳璪林, 朴宗興, 徐敬淳, 申常顯, 沈獻永, 李湘, 李承達, 李安信, 任允華, 趙中植, 玄翊洙, 湖南二士.

50) 「權忠壯公實記序」가 수록된 『權忠壯公實記』라는 서명의 책은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홍직필이 작성한 서문이 수록된 책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권율의 문집인 1885년 간인 『晚翠堂遺蹟』 7卷3冊(청구기호: 일산古2511-07-4)과 경매 사이트에서 출품된 『晚翠堂集』 7卷3冊이 확인되고, 국외에서는 일본 와세다대에서 소장 중인 1890년 간인 『晚翠堂實紀』(청구기호: ㄹ07 04095, 목활자본 5卷2冊)가 확인된다. 와세다대의 『晚翠堂實紀』는 문집이 아닌 實記로 홍직필과 권율의 9대손 권창섭의 서문이 수록되었으며, 해당 책에 수록된 「晚翠堂實紀序」와 간본 매산집의 「權忠壯公實記序」의 내용 또한 전부 동일하기에 홍직필이 작성해준 서문이 수록되어야 할 책인 『權忠壯公實記』는 와세다대 소장 『晚翠堂實紀』로 볼 수 있겠다.

51) 『源百錄』은 천안 사람 全時五, 仁壽, 禹錫 3대의 효행과 전인수의 딸 純孝의 열녀로써의 절개를 기록한 책으로, 홍직필이 쓴 서문이 들어있는 필사본 『源百錄』이 2016년 고서 경매로 나왔던 것이 확인된다.

10종에 대한 서문 10편이 있으며 『岐峯集』, 『西齋集』, 『潛溪集』, 『耻菴集』⁵²⁾ 등 문집 35종에 대한 서문 35편이 실려 있다. 국중본에만 수록된 문집서의 실제 서책을 살펴보면, 杜門洞 72현 중 한 명인 고려 충신 程廣의 『巾山集』은 현존본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처럼 홍직필이 현재는 소실된 문집을 위하여 작성한 서문은 해당 문집에 대한 연구의 단서를 제공해주고 있기에 국중본의 자료적 가치를 더욱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4> 간본·국중본에 수록된 書序의 서종

구분	간본	국중본
文集	『蘭菊齋遺稿』, 『三隱合稿』, 『性堂集』, 『信菴集』, 『悅菴集』, 『懷齋集』 - 총 6종	『巾山集』, 『槐軒集』, 『近思齋遺稿』, 『岐峯集』, 『東塾集』, 『遁翁集』, 『蘭菊齋遺稿』, 『俛仰續集』, 『默軒集』, 『文城世稿』, 『盤菴集』, 『白巖集』, 『百原集』, 『三隱合稿』, 『西齋集』, 『石屏集』, 『性堂集』, 『松厓集』, 『松湖集』, 『習齋集』, 『信菴集』, 『養新齋集』, 『悅菴集』, 『畏庵集』, 『潛溪集』, 『貞軒集』, 『竹室集』, 『竹菴集』, 『竹村集』, 『秋月軒集』, 『耻菴集』, 『大巢遺稿』, 『退谷集』, 『黃阜集』, 『後重陽雅集詩』 - 총 35종
實記, 重建記	『權忠壯公實記』, 『松軒權公實記』, 『李忠莊公實記』 - 총 3종	『權忠壯公實記(晚翠堂實紀)』, 『老村李平靖公實記』, 『沙溪房公實紀』, 『三賢實記』, 『松軒權公實記』, 『李忠莊公實記』, 『全齋記』, 『鄭忠壯公實記』, 『正統祠重建記』, 『楸溪尹文孝公實記』 - 총 10종
族譜, 世譜	×	『高敞吳氏族譜』, 『南陽洪氏族譜』, 『南平文氏族譜』, 『唐城洪氏世譜』, 『驪陽陳氏族譜』, 『順天玄氏族譜』, 『新寧尹氏族譜』, 『延川玄氏族譜』, 『潁陽千氏派譜』, 『永川李氏族譜』, 『吳山李氏族譜』, 『劉氏族譜』, 『義城金氏族譜』, 『利川徐氏族譜』, 『益州李氏族譜』, 『全州李氏派譜』, 『延川玄氏三修世譜』, 『竹山安氏族譜』, 『清州楊氏族譜』, 『清風金氏波譜』, 『坡州廉氏族譜』, 『河陽許氏族譜』, 『河陰李氏族譜』, 『咸悅南宮氏族譜』, 『海州吳氏族譜』, 『花山李氏世譜』, 『花山李氏族譜』, 『興陽吳氏族譜』 - 총 28종
기타	『讀書要訣』, 『士禮彙攷』, 『清德祠誌』, 『洪忠平公事蹟考』 - 총 4종	『家言』, 『闕西忠義傳』, 『讀書要訣』, 『喪氏忠孝錄』, 『柄山祠誌』, 『士禮彙攷』, 『相觀帖』, 『松林士聞歸觀曦陽』, 『歷代人物通攷』, 『聯芳錄』, 『源百錄』, 『疑禮分類』, 『人事尋緒日』, 『一家則』, 『清德祠誌』, 『治博士業升上庠途廢舉不復赴公車稊躬讀』, 『豐川盧氏家學十圖』, 『洪忠平公事蹟考』, 『希陽齋』 - 총 19종

문집서 외에도 국중본에는 간본에 모두 누락된 『南陽洪氏族譜』, 『延川玄氏三修世譜』와 같은 족보와 세보 28종에 대한 서문 28편⁵³⁾이 수록되었다. 양 본을 비교 시 간본에 수록되지 않은 書序는 81편이며 간본에 수록되지 않은 서서의 종류는 族譜, 世譜 등을 위한 序, 증건기를 위한 序가 확인된

52) 白光弘, 『岐峯集』, 활자본 5卷2册, 고려대학교(청구기호: 景和堂D1-A1393); 任徵夏, 『西齋集』, 목활자본 8卷4册, 국립중앙도서관(청구기호: 일산古3648-63-3); 李全仁, 『潛溪集』, 목판본 2册, 국립중앙도서관(청구기호: 古3648-62-472); 李之濂, 『耻菴集』, 목활자본 8卷4册, 와세다대학교(청구기호: ~16 02340) 이상 4종의 책에서 홍직필의 서문이 확인된다.

53) 국중본 제159책 19번째에 『唐城洪氏世譜』에 대한 서문인 『唐城洪氏世譜序』 다음에 『唐城洪氏世譜 凡例』가 수록되었으나, 범례는 서문이 아니기에 본 연구에서는 기타 잡지로 분류하였다.

다. 전체 92편 중 문집서가 37.2%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族譜序가 30.8%로 문집서와 族譜序가 홍직필이 저술한 書序 중 70%를 차지한 것을 알 수 있다.

後序는 자신이나 타인의 저작물 뒤에 붙이는 서문이다. 간본에는 金純澤이 저술한 『李秉泰傳』⁵⁴⁾에 붙인 『東山李公秉泰傳後序 戊戌』 1편이 수록되었고 국중본에는 간본으로 편차된 後序 1편을 포함 총 3편⁵⁵⁾을 볼 수 있다.

이상을 정리하면 간본과 국중본의 서문은 모두 送序, 贈序, 壽序, 書序, 後序로 구분할 수 있으며 양본 모두 書序가 가장 많이 수록되었으며 後序와 贈序가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간본에 1편도 수록되지 않은 族譜序, 重建記序의 존재를 통하여, 한 개인에 대한 연구 혹은 문집 작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때 간본뿐만 아니라 별도로 남겨진 필사본의 유무를 확인한 후 편찬의 근거 자료가 되는 필사본이 존재하다면 이를 반드시 참조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4.2 題跋

간본과 국중본 문집에 수록된 제발의 작품 수를 <표 15>와 함께 알아보면, 간본 卷29~30에는 1802년부터 1851년까지 작성된 총24편의 제발이 수록되었으며 그 중 卷29에 15편, 卷30에 9편이 실려 있다. 국중본 제148, 164~166冊에는 1802년부터 1852년까지 중복 포함 총 149편, 중복 제외 시 103편의 제발이 실려 있다.

간본으로 편차된 제발 24편과 국중본 103편(중복 제외)을 비교하면 간본의 제발 24편 중 4편⁵⁶⁾은 국중본에 수록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국중본에 누락된 간본의 작품이 있지만, 양본의 작품 수를 산술적으로만 비교해보면 간본으로 편차된 발문은 홍직필이 작성한 제발 중 23.3%만 수록된 것이라 할 수 있다.

題跋의 중복율을 살펴보면, 국중본의 題跋은 총 149편, 중복 제외 103편, 순 중복은 46편(중복율 30.8%)이다. 이 중에서 국중본의 題跋 중 간본으로 편차된 것은 중복 포함 30편, 중복 제외 20편, 순 중복 편수는 10편(중복율 33.3%)이며, 국중본에서만 볼 수 있는 발문은 중복 포함 119편, 중복 제외 83편, 순 중복 편수는 36편(중복율 30.2%)이다. 간본으로 편차된 작품의 중복율(33.3%)이 그렇지 않은 경우(30.2%)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으며, 그 이유는 앞서 서문에서 분석한 것처럼 시부류, 서설류와 같은 복잡한 교정 작업 없이 수월하게 발문 편찬이 진행된 것에 연유한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현상은 서발류 이하 모든 문체에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54) 『李秉泰傳』은 金純澤의 『志素遺稿』 제3책 처음에 수록되어 있다.

55) 국중본 제151책 『朱子語類要略後序 丙戌』, 제156책 『關里誌後序 己亥九月』.

56) 간본 卷29 『敬書丙申二月四日正廟上疏後』, 『題千歲曆後 贈庶弟若弼 庚寅』, 『題栗谷全書後 贈閔孫泳和』 卷30 『書近齋先生草說後 己酉』.

<표 15> 간본·국중본에 수록된 연도별 題跋 편수

연번	서기	연령	간본	국중본		연번	서기	연령	간본	국중본	
				중복 제외	중복 포함					중복 제외	중복 포함
1	1802년	27	2편	3편	3편	16	1841년	66	-	1편	1편
2	1803년	28	-	1편	1편	17	1842년	67	-	1편	2편
3	1811년	36	1편	1편	1편	18	1843년	68	-	-	-
4	1817년	42	1편	1편	2편	19	1844년	69	1편	1편	1편
5	1824년	49	-	2편	2편	20	1845년	70	-	-	-
6	1825년	50	1편	1편	1편	21	1846년	71	1편	1편	2편
7	1830년	55	1편	-	-	22	1847년	72	-	-	-
8	1833년	58	1편	2편	2편	23	1848년	73	1편	2편	2편
9	1834년	59	2편	3편	4편	24	1849년	74	3편	3편	6편
10	1835년	60	-	1편	1편	25	1850년	75	1편	3편	5편
11	1836년	61	2편	5편	7편	26	1851년	76	1편	3편	4편
12	1837년	62	-	5편	9편	27	1852년	77		1편	1편
13	1838년	63	1편	1편	2편	28	미상		3편	57편 ⁵⁷⁾	83편
14	1839년	64	1편	2편	3편		총		24편	103편	149편
15	1840년	65	-	2편	4편						

다음으로 양 본에 수록된 題跋의 구성과 내용을 살펴보면, 홍직필은 정조가 자신에게 내려진 대리청정을 거두어 줄 것을 청하는 상소에 대하여 지은 발문, 정조의 비 孝懿王后⁵⁸⁾가 정조 사후 자신에게 회호를 올리려는 청을 사양하는 諺教에 대하여 지은 발문, 대구의 李再昌, 光道 부자를 위해 세워진 5개의 송덕비 碑帖에 대해 지은 발문, 홍직필 7대조의 공주목사 임명 教旨에 대해 지은 발문, 宋浚吉의 手筆을 소장하던 문인 閔泳穆의 부탁으로 지은 手筆에 대한 발문⁵⁹⁾ 등 上疏, 諺教, 碑帖, 告身, 遺詔, 手筆, 書, 詩와 같이 다양한 종류의 글에 대하여 발문을 작성하였다. 간본과 국중본에 수록된 수많은 종류의 발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書跋로 간본에 14편, 국중본에 37편이 실려 있다. 그리고 국중본에 26편이 수록된 詩跋은 국중본 내에서는 書跋 다음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간본에는 1편만이 실려 있기에 양 본간의 확연한 대조를 보인다.

간본으로 편차된 書跋 14편을 <표 16>과 함께 살펴보면, 소장하던 『栗谷全書』를 외손자 閔泳和에게 주면서 써준 『題栗谷全書後贈閔孫泳和』를 포함 문집발이 6편으로 가장 많으며 나머지 8편은

57) 양 본의 題跋은 작성 시기를 알 수 없는 발문이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국중본의 경우 그 수가 103편의 56.3%(58편)에 달한다. 따라서 서문에서 시도하였던 홍직필의 생애별 작성 경향과 추이를 발문에서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제발에서는 이를 생략하도록 하겠다.

58) 孝懿王后(1753~1821)는 김시목의 딸이자, 홍직필의 증조부인 左贊成 洪尙彥(1701~1763)의 외손녀.

59) 간본 卷29 『敬書丙申二月四日正廟上疏後』; 卷29 『敬書壬戌五月十三日王大妃殿諺教後』와 국중본 165책 『敬書壬戌五月十三日王大妃殿諺教後』, 『又題』; 卷29 『題大邱府李掾再昌碑帖後辛未』와 국중본 165책 『題大邱府李掾再昌碑帖後辛未十二月』; 卷29 『題七代祖考牧使府君告身後』와 국중본 165책 『題七代祖考牧使府君告身後』; 卷30 『書閔遠卿所藏同春先生手筆後 己酉』와 국중본 164책 『書閔遠卿所藏同春先生手筆後』.

實記, 언행록, 충효록과 같은 다양한 책에 대한 書跋로 구성되어 있다. 국중본에 수록된 書跋 36편은 『醉吃集』, 『雙修堂集』⁶⁰⁾ 등 문집 14종에 대한 문집발 15편,⁶¹⁾ 『南疆釋史』, 『貞菴閣先生言行錄』과 같은 사서, 언행록, 실기와 같은 책 21종에 대한 書跋 22편⁶²⁾으로 구성된 것을 볼 수 있으며, 간본에 수록된 『題栗谷全書後贈閔孫泳和』과 『千歲曆』이 누락된 상태이다. 국중본의 서발 중 『題農巖先生繡行日記後 乙未閏月十三日』은 농암 김창협이 1684년 8월 호남에 암행어사를 지낸 시절 작성한 기록인 『農巖先生繡行日記』에 붙인 발문이다. 『農巖先生繡行日記』는 김창협의 문인인 어유봉의 후손 魚命能이 홍직필에게 보여준 책인데, 해당 책은 현존본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국중본에 수록된 발문을 통해서 지금은 소실된 책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중본에만 수록된 제발의 의의와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6> 간본·국중본에 수록된 書跋의 서종

구분	간본	국중본
文集	卷29 『許滄海詩集』, 『凝齋李公文集』, 『栗谷全書』 卷30 『思菴集』, 『寒岡續集』, 『鶴菴集』 - 총 6종	『北汀集』, 『思菴集』, 『雙修堂集』, 『漁村集』, 『鑑齋集』, 『凝齋李公文集』, 『趙玄默文稿』, 『志軒遺藁』, 『醉吃集』, 『下谷集』, 『鶴菴集』, 『寒岡續集』, 『韓聖汝詩稿』, 『許滄海詩集』 - 총 14종
文集 外	卷29 『千歲曆』, 『近齋先生實記』, 『金氏四孝錄』, 『忠逆辨』, 『皇明殉節錄』 卷30 『小華外史』, 『吳氏家乘續編』, 『皇明遺民傳』 (총 8종)	『家乘續編(吳氏家乘續編)』, 『擊蒙要訣』, 『近齋先生實記』, 『金氏四孝錄』, 『南疆釋史』, 『農巖先生繡行日記』, 『唐本綱目』, 『讀書隨錄』, 『讀書鈔語』, 『瑞梧堂記』, 『小華外史』, 『椽曹龜鑑』, 『月城世狀』, 『俞李兩儒通文』, 『梨湖實記』, 『貞菴閣先生言行錄』, 『春秋左傳』, 『忠逆辨』, 『鄉塾學規』, 『皇明殉節錄』, 『皇明遺民傳』 - 총 21종

간본으로 편차된 詩跋은 『題臺山金公所著六青軒詩跋後 甲辰』 1편으로, 麗韓十大家 중 한 명이 자 낙론 학자인 臺山 金邁淳(1776~1840)의 시 『六青軒』에 홍직필이 발문을 지은 것이다. 김매순과 홍직필 간 관계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간본 권2와 국중본 제4책에 수록된 『龍湖舟中望臺山金德叟邁淳舊亭有感』, 국중본 제139책 28~30번째 수록된 『臺山書』를 통하여 알 수 있듯 어느 정도 교유가 있었던 사이로 보인다. 게다가 이 詩跋은 김매순의 조문 자리에서 김매순의 아들 金寅根이 홍직필에게 발문을 부탁한 것이라는 의의와 함께, 홍석주와 함께 문장가로 이름난 김매순의 시에 대한 발문을 간본에 수록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국중본에는 김매순 말고도 姜周欽, 金明叔, 李鳳秀, 李元在, 李載毅 외 다양한 인물의 시에 붙인 발문 26편이 수록되었으나 김매순의 『六青軒』에 붙인 발문만 간본에 수록된 이유는 김매순과 홍직필의 관계와 함께 김매순이 문장가로써 갖는 상징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60) 金三樂, 『雙修堂集』, 목활자본 2卷1册, 국립중앙도서관(청구기호: 한古朝46-가615).

61) 국중본 제166책 19, 20번째에 『寒岡續集』에 대한 『書寒岡續集後 戊申五月』, 『更題寒岡續集後』 2편이 수록.

62) 국중본 제166책 39, 40번째에 『金氏四孝錄』에 대한 2편의 발문 『題金氏四孝錄後 辛亥』, 『金氏四孝錄跋 壬子』가 수록되었으며, 이 중 간본에 편차된 것은 『題金氏四孝錄後 辛亥』이다.

이상 간본과 국중본에 수록된 서발류에 대하여 정리하면, 간본과 비교하여 교정 원고의 합집인 국중본에서만 확인되는 글의 양(서문 114편, 발문 79편)은 간본의 서발문 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또한 간본에서만 확인되는 글의 존재는 국중본에 홍직필의 모든 서발문이 수록된 것은 아님을 알려준다. 그리고 국중본에만 수록된 서발문 중 현재 전해지지 않은 책인 『巾山集』, 『農巖先生繡行日記』에 대하여 작성한 글이 확인되면서 해당 책에 대한 존재 및 연구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기에, 이를 통해서 국중본 연구는 단순히 홍직필의 문집 혹은 홍직필의 가치관, 인물상에 대한 연구 외에도 현재는 소실되었으나 19세기 중반까지 현존하던 문집의 종류, 해당 문집 편간과 관련된 정보 등을 파악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 론

본 연구는 홍직필의 『梅山集』 간본과 교정원고의 합집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필사본 224책에 수록된 산문 중 奏議類, 書說類, 序跋類에 해당하는 모든 작품을 비교하여, 각 판본별 奏議類, 書說類, 序跋類의 구성과 특징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국중본의 가치도 다시금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奏議類는 간본에 31편(疏 11편, 啓 12편, 議 7편, 筵說 1편), 국중본에 중복 포함 53편(疏 18편, 啓 22편, 議 12편, 筵說 1편), 중복 제외 41편(疏 13편, 啓 16편, 議 11편, 筵說 1편)이 수록되었다. 또한 홍직필의 주의류는 문집 외에도 승정원일기, 실록에도 수록되었으며 4종의 책을 함께 비교한 결과, 판본 중 홍직필이 작성한 원글에 가장 가까우면서 가장 많은 내용을 수록한 판본은 국중본이었으며, 다음으로는 승정원일기, 간본 문집, 실록 순이었다. 이는 특정 인물의 정치적 업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경우 간본 문집 외에 편찬 원고를 묶은 필사본을 확보한 상태로 연구를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간본문집과 함께 승정원일기, 실록을 함께 교차 분석하여도 필사본의 부재를 어느 정도는 메울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리고 홍직필에게 부여해야 할 이상적인 인물상에 오점이 될 수 있는 기록이 설령 승정원일기나 실록에는 남아있더라도 해당 글은 문집 편찬자들에 의해 삭제되었으며 홍직필이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작성해준 포증소도 모두 삭제된 것을 밝혔다.

각 판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書說類는 간본에 1,017편(書 1,017편, 書贈 ×), 국중본에 중복 포함 8,545편(書 8,288편, 書贈 257편), 중복 제외 6,357편(書 6,188편, 書贈 169편)이 수록되었다. 국중본의 전체 편지 대비 중복 편지가 차지하는 비율(중복율)은 25.3%였으며, 국중본 작품 중 간본으로 편차된 작품과 국중본에만 수록된 작품의 중복율은 각 48.5%와 16.9%로, 간본에 수록된 작품에 대해 더욱 세심하게 교정이 진행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6,188편 중 간본으로 편차된 작품(1,135편) 대비 국중본에서만 확인되는 작품(5,053편)의 비율이 대략 1.9:8.1을 이루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를 시부류(2.3:7.7)와 비교하면 시보다 편지가 편찬 과정 중에 버려지는 글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6,188편 중 약 5천 편의 편지가 산삭된 간본 문집은 편찬자들의 주관에 따라 작품의 취사선택이 발생하고 편집된 저작이라고 할 수 있기에 편찬의 결과물인 간본에 저자의 의도와 사상적 지향점을 온전히 담겨졌다고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문집을 통하여 문집 저자의 가치관, 저자를 둘러싼 사회상, 문집에 수록된 시나 편지에 대한 문학적·학문적 분석이 필요한 연구를 진행할 때는 반드시 편찬자들에 의하여 선별되고 완성된 간본 문집뿐만 아니라 저자의 원고가 최대한 원본에 가깝게 남겨진 필사본도 함께 참조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편지의 수신자는 간본 410명, 국중본 956명이었으며, 양 본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수신자는 404명, 간본에서만 확인되는 수신자는 6명, 국중본에서만 확인되는 수신자는 552명이다. 이는 간본 문집에 수록된 글을 통하여 분석하는 저자의 사회적 인간관계는 실제와 비교하여 절반 정도의 관계만 파악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내포한다. 홍직필의 생애를 '10代 후반~20代(1792~1805년) → 30代(1806~1815년) → 40代(1816~1825년) → 50代(1826~1835년) → 60代(1836~1845년) → 70代(1846~1852년)' 총 6단계로 구분하여 시기별 수신자의 변화를 정리하면, 20代까지 수신자 67명에게 편지 334편을 보낸 홍직필은 30代에는 145명에게 829편을 보내며 학술적으로 활발히 주변인들과 교류하기 시작하였고 수신자는 대부분 선배, 지구였다. 40代에는 158명에게 편지 956편을 보냈으며 오희상과의 교류가 본격화되면서 그와 교류한 편지가 가장 많이 확인되고, 오희상과 함께 서울 지역 노론 학계를 이끌면서 문인들이 걸집하기 시작하던 50代에는 216명에게 편지 1,231편을 보냈다. 60代에는 281명에게 1,236편을 보냈으며 수신자 중 문인의 수가 대폭 늘어났고, 70代에는 503명에게 1,469편을 보냈으며 수신자는 대부분 문인으로 변화하였다.

序跋類의 경우, 간본에 45편(序 21편, 跋 24편), 국중본에 중복 포함 394편(序 245편, 跋 149편), 중복 제외 237편(序 134편, 跋 103편)이 수록되었다. 간본과 국중본의 서문은 送序, 贈序, 壽序, 書序, 後序로 구분되며 양본 모두 書序(간본 13편, 국중본 92편)가 가장 많이 수록되었고 後序와 贈序의 수가 적다. 제발은 上疏, 諺教, 碑帖, 告身, 遺詔, 手筆, 書, 詩와 같이 다양한 종류의 글에 대하여 작성되었다. 간본과 국중본에 수록된 수많은 종류의 발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書跋(간본 14종 14편, 국중본 35종 37편)이다. 서발류 역시 간본에만 수록된 작품이 확인되면서 홍직필이 작성한 모든 서발문이 국중본에 수록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국중본에만 수록된 서발문 중 杜門洞 72인 중 한 명인 고려 충신 程廣의 현재 전해지지 않는 문집인 『巾山集』, 농암 김창협이 현존본이 확인되지 않는 『農巖先生繡行日記』에 대하여 작성된 홍직필의 글은 19세기 중반까지 현존했지만 소실된 서책들의 종류, 해당 책의 편간 관련 정보 등을 파악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당 문집에 대한 연구의 단서를 제공해주고 있는 이들 서발문을 통하여 편찬 원고의 합집인 국중본이 지니는 자료적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承政院日記』. 영인본.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68.
- 『純祖實錄』. 영인본.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86.
- 『憲宗實錄』. 영인본.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86.
- 『哲宗實錄』. 영인본.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86.
- 韓運聖. 『立軒集』 간본. 한국문집총간 속124. 서울: 한국고전번역원.
- 洪直弼. 『梅山集』 간본. 한국문집총간 295~296. 서울: 한국고전번역원.
- 洪直弼. 『梅山集』 필사본. 국립중앙도서관(古朝46-가1088).
- 심경호. 『한문 산문의 미학』.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2013.
- 진필상. 『한문문체론』. 서울: 이회문화사, 2001.
- 김수진. “능호관(凌壺觀) 이인상(李麟祥) 문학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2.8.
- 김수진. “朝鮮後期 刊本文集의 編輯傾向.” 『규장각』 42(2013. 6). 97-127.
- 김수진. “朝鮮後期 文集刊行의 推移와 그 特徵.” 『어문연구』 제41권 3호(2013. 9). 353-373.
- 박학래. “梅山 洪直弼의 性理說 연구 - 19세기 전반기 호락논쟁의 추이에 유의하여.” 『국학연구』 26(2015. 4). 229-264.
- 이형유. “필사본 『梅山集』의 구성 및 타인 저작에 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53권 3호 (2019. 8). 345-372.
- 이형유. “국중본 『梅山集』 중 시부류의 구성 및 편찬 과정에 대한 연구.” 『서지학연구』 79집(2019. 9). 133-166.
- 이형유. “洪直弼의 『梅山集』 편찬과 간행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20.8.
- 최 식. “주의류(奏議類) 산문의 특징과 전개양상.” 『동방한문학』 31(2006. 12). 203-226.

• 국문참고자료의 영어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oi, Sik. 2006. “Characteristics and developmental phrase of Jui-eui-ryu prose.” *Journal of Dong-Bang Korean Chinese Literature Society*, 31: 203-226.
- Han, Un-seong. *Ipheonjip: Korean Literary Collections in Classical Chinese, suppl. vol. 124*. Seoul: Institute for the Translation of Korean Classics.
- Hong, Jik-pil. *Maesanjip*. manuscript.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古朝46-가1088)

- Hong, Jik-pil. *Maesanjip: wooden-movable type. Korean Literary Collections in Classical Chinese. vol. 295~296*. Seoul: Institute for the Translation of Korean Classics.
- Kim, Su-Jin. 2012. *A study on Neunghogwan Lee Insang's literary works*. doctoral dissertation. Dep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Seoul Nat'l Univ.
- Kim, Su-Jin. 2013.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Publication of Anthologies in Late Joseon Dynasty." *Journal of the Society for Korean Language & Literary Research*, 41(3): 353-373.
- Kim, Su-Jin. 2013. "Trends in Editing of Printed Anthologies of Late Joseon Period: focusing on Materials found in Kyujanggak Collection." *Kyujanggak*, 42: 97-127.
- Lee, Hyung-yu. 2019. "A Study on the Composition and Compilation Process of Poetry in Manuscript Collection Maesanjip in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79: 133-166.
- Lee, Hyung-yu. 2019. "A Study on the Composition of Manuscript Collection 『Maesanjip(梅山集)』 and the Works of Other Authors included in the Book."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3(3): 345-372.
- Lee, Hyung-yu. 2020. *A Study on the Compilation and Publication of the 『Maesanjib』 written by Hong Jik-pil*. doctoral dissertation. Dept.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Sungkyunkwan Univ.
- Park, Hak-rae. 2015. "A study of Maesan Hong Jik-pil's theory of the Nature and Principle: focusing on changes of Horak Controversy in early 19th century." *Korean Studies*, 26: 229-264.
- Seungjeongwon. 1968. *Seungjeongwon-ilgi*. photographic edition. Seoul: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 Sillokcheong. 1986. *Cheoljong sillok*. photographic edition. Seoul: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 Sillokcheong. 1986. *Heonjong sillok*. photographic edition. Seoul: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 Sillokcheong. 1986. *Sunjo sillok*. photographic edition. Seoul: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